



코스피	↑	코스닥	↑
2070.73	(+8.40)	645.12	(+0.84)
금리 (우대금리)	↓	환율 (원/달러)	↑
1.31	(-0.01)	1191.30	(+0.60) (18일)



[뉴스] 차기 수출입은행장에 전병조 급부상 02

잔심부름에 진학상담까지... '극한직업' 증권사 PB

집안 사정, 고민 등 공유 이사부터 자녀 숙제까지 VIP 고객의 '집사' 역할 주말 스케줄도 비워야

《증권사 PB출신 인터뷰》

A증권사 PB 경력 4년

"출근 첫날부터 VIP고객 이사 도와"

"좋은상품 추천 위해서 밤샘 공부"

B증권사 PB 경력 6년

"주말 스케줄은 VIP 고객 위해서"

"거의 가족과 같은 친밀감으로"

C증권사 PB 경력 10년

"골프 갑질, 모든 비용 내게 부담"

"믿어주는 고객이 힘"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무실 PC를 옮기는 과정에서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권사 PB 업무 영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B는 거액 투자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다. PB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은 고객자산가와 PB와의 관계가 어디까지냐다.

일반적으로 한 증권사에 10억 원 정도를 맡기면 PB로부터 VIP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PB는 VIP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집사'가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메트로신문은 18일 증권사 PB 출신 3명을 인터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들은 각자 다른 증권사 출신. 4년차, 6년차, 10년차 증권맨을 만나 실제 PB 영업

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었다. ◆ "고객 자녀의 진학부터 결혼까지"

증권사 PB들은 VIP와의 친밀도는 '고객 이상'이라고 했다. 진짜 가족의 일원처럼 그들의 집안 사정, 미래 계획, 사적인 고민 등을 모두 공유하는 사이라고.

B증권 PB는 "VIP 고객을 처음 만날 때 하는 대화는 투자 상품 제안이 아니다. 고객의 가족 구성원, 집안 문제 등을 들어주는 일부터 한다. 고객의 모든 사

생활과 가치관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은행 PB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 '끈끈함'이라는 것. 증권사 PB는 VIP 고객의 모든 집안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해당 PB가 지점을 옮기면 고객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증권사 PB는 "5년 넘게 PB 업무를 하다가 본사로 발령이 났을 때 VIP 고객 한 분이 수수료는 알아서 책정해도 좋으니 자산관리를 계속해줄 수 없냐고 부탁했다. 그건 불법이고, 관리 시스템 접근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설득했다. 지금도 다시 지점으로 돌아오면 본인 돈을 맡아 달라고 부탁한다"고 했다.

증권사 PB들은 통상 VIP 고객의 '집사'라고 말한다. 집안 사정을 다 아는 만큼 그들의 사소한 부탁도 들어주고, 잔심부름을 한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한 증권사 PB가 정경심 교수님 도와 PC를 옮긴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나라도 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

A증권사 PB는 "처음 영업직

을 시작하고 VIP 고객 한 분이 이사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 당황스러웠지만 주변 선배들께 물어보니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본인은 VIP 고객 자녀의 영어 숙제까지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 PB들의 주말은 VIP 고객을 위해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한다"고 했다.

B증권사 PB 역시 "강남에 유명한 PB분은 고객들 간 혼사를 맺어주면서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다. 고객 자녀들의 진학상담을 위해 진학전문가도 연결시켜주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소개팅을 주선하기도 한다"고 했다.

고객의 '갑질'은 일상사라고 한다. C증권사 PB는 "어느날 고객분이 골프를 함께 치러가자고 해서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날 골프피부터 모든 것을 나에게 내도록 했다"고 한탄했다.

실제 증권사의 PB의 취미, 스케줄은 모두 VIP 고객에게 맞춰진다. 증권사 PB 교육과정에도 인, 요트, 명품 등을 배우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VIP들과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4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스마트물류 향한 한발 전진

메트로경제가 오는 9월 26일(목)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스마트물류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제4회 물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합니다.

메트로경제는 지난 3회까지 물류산업에 초점을 맞춰 포럼을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물류산업과 모빌리티산업의 융·복합 추세에 주목해 포럼 주제를 '물류&모빌리티 포럼'으로 확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주요 산업에서 불고 있는 가운데 물류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물류집하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운송 효율화,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창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블록체인·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이 물류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산업과 물류 산업의 융합 추세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두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와 정책 과제 등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물류산업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One more step Smart Logistics (스마트물류를 위한 한발 전진)
- 일 시 : 2019년 9월 26일(목) 13시 30분~17시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 등 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살처분 준비하는 방역 당국

18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ASF, 연천도 뚫렸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기북부 6개 시·군 집중방역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 잇달아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미 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파주, 연천을 포함해 경기 북부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의 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 백학면의 한 양돈농장

은 어미돼지 한마리가 폐사하자 전날 오후 2시경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돼지 4700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로써 전날 파주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연이틀에 걸쳐 두 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연천군 발병 농장에서 긴급 살처분 등 방역을 진행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밖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대성 기자

2047년 '1인 가구'가 3분의 1

통계청, 장래가구 특별추계 독거노인, 2017년의 3배 ↑

국내 가구 수가 204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매년 9만 가구 이상 늘면서 2047년이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의 3~4인 가구로 구성된 1인 가구가 1인 또는 2인으로 쪼개지

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지 12년 뒤에는 가구 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2047년에는 혼자사는 65세 이상 고령 노인이 2017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가구 수는 2017년 1957만 1000 가구에서 서서히 늘어나 2040년

2265만 1000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45년 2245만 6000 가구로 떨어지던 2047년에는 2230만 3000 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내뉘던 추계와 비교하면 가구 정점이 3년 앞당겨진 셈이다.

1인 가구는 2017년부터 30년 간 연평균 9만 1000 가구가 늘어

날 전망이다. 부부가구도 매년 5만 7000 가구가 증가하지만,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구는 연 8만 4000 가구씩 감소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5%에서 2047년 37.3%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 구성비는 2037년 기준으로 한국이 35.7%로 호주(26.5%), 뉴질랜드(27.8%·2038년), 캐나다(30.2%·2036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은 39.0%로 한국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차기 수출입은행장에 '아이디어 맨' 전병조 급부상

〈전 KB증권 사장〉

盧정부 시절 비서실행정관 지내 관료 출신에도 IB전문가 인정받아 추진·영업력 강해 DCM 1위 이끌어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

차기 수출입은행장 후보로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이 급부상했다.

전병조 전 사장은 기존에 수출입은행장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마찬가지로 행시 29회에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최희남 사장이 '국제 금융통' 관료로서의 행보를 이어간 것과 달리 전병조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가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투자업계에서 최고경영

자(CEO)까지 오른 인물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공식이 된 수출입은행장으로 전병조 전 사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전병조 전 사장은 대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9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국제금융과 등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후에는 빠른 승진으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관 겸 국제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관료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대통령비서실에 있을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박남춘 인천시장이나 이광재 전 의원 등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조 전 사장은 2008년 9월에 NH

투자증권 투자금융(IB) 부문 전무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생활을 떠났다. 2012년 7월에는 KDB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IB부문 전무, 2013년 8월 KB투자증권 부사장을 역임한 뒤 2015년 1월 KB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 이후에도 각자 대표 체제로 KB증권의 IB 부문을 이끌어 오다가 지난해 말 사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병조 전 사장은 당시 KB투자증권이 중소형사였음에도 채권발행시장(DCM) 1위를 이끌 정도로 추진력과 영업력이 강했다"며 "관료 출신임에도 업계에서 IB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았고,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업계평판은 긍정적이지만 수출입은행 내부에서도 저항없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기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최희남 KIC 사장과 비교하면 국제금융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전임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국제금융통이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됐다. 최희남 KIC 사장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세계은행(WB) 이사, 국제통화기금(IMF) 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KIC로 이동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돼지고기 경매가 40% 급등... 소매가도 소폭 상승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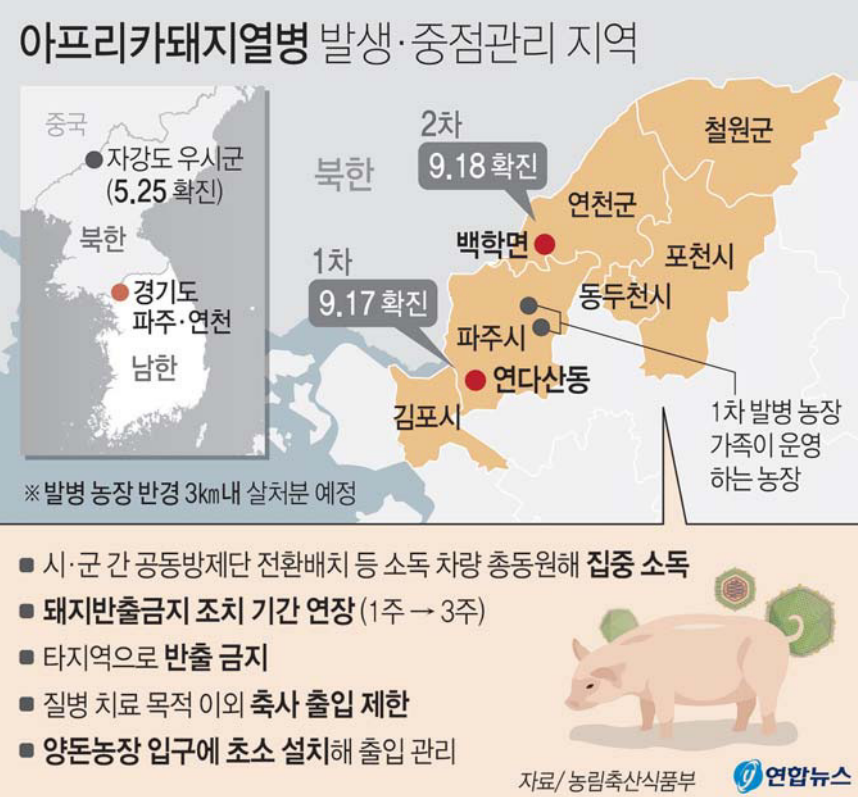
도매상 거쳐 1~2일 후 소매상 유통 정부 "수급에 영향 미칠 정도 아냐"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전염병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의 돼지 사육 마릿수가 전국의 10% 미만이며, 현재 돼지고기 공급량이 충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거래 기준 돼지고기 전국 평균 경매가는 kg 당 6030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한 16일(4316원)보다 약 39.7% 증가했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 가격은 소폭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6일 100g당 2013원이던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지난 17일 2029원, 18일 2044원으로 올랐다. 이는 한 달 전 가격인 1884원에 비교하면 8.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2192원) 보다는 약 6.8% 저렴한 가격이다. aT 측은



최근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대체로 약세였지만,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소매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산물 공판장 경매를 거친 돼지고기는 중간 도매상을 거쳐 1~2일 후 정육점과 식당 등으로 유통된다. 이에 도매 상승분이 소비자가로 반영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또한 대형마트의 경우 약 1주일 치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장 소비

자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 전망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약 1주일치 돼지고기를 보유하고 있고, 추후 수입 돈육 등 대체 상품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인체에는 무관하다는 사실로 아직까지는 구매를 주저하는 고객이 적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를 조기 진화하지 못한다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중국에서 돼지고기값이 1년 전보다 47% 가까이 폭등

했다. 지난해 중국 전역을 휩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생산량이 줄면서 국제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으로 돼지고기 값이 요동칠 것이라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348만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공급량이 줄어 돼지고기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다. 당시 돼지고기값 상승은 이를 원료로 하는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외식업계와 식품제조업계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돼지고기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서 현재 돼지고기 가격을 일반적인 대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전국 6300개 돼지 사육 농가에서 1200만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파주와 연천 등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에서는 약 1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국 돼지사육 두수는 평년보다 13%가량 많고 재고도 쌓여 있어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어제 가격이 오른 것은 수급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1200원 환율 효과' 수출입 물가 동반상승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오르면서 수출입 물가가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 수출물가도 13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환율 상승효과를 제거하면 수출입 물가는 여전히 하락세였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9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01.90(2015=100)으로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9% 하락했다.

전월 대비 수출물가는 6월(-2.2%), 7월(-0.3%) 연속으로 하락하다 8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상승폭은 지난해 7월(2.5%)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수출물가가 반등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평균 달러당 1175.3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평균 1209원으로 2.9%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 기기가 1.1% 상승했다. D램(2.9%), 플래시 메모리(2.9%), 시스템 반도체(2.9%) 등 반도체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2.9% 상승한 영향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세다. 환율 영향을 제거해도 0.1% (계약통화기준) 상승했다. D램 수출물가는 환율 효과를 빼면 전월 대비 보합세였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2%, 수입물가는 1.8% 하락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은성수 "핀테크 혁신펀드 3000억... 과감한 정책 펼칠 것"

금융위원장 '스케일업 현장간담회' '내년3월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운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을 위한 첫 행보로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기업이 나오기 위해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선과 투자,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은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고 핀테크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혁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성장세도에 오른 기업의 성공에는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과 글로벌 시장확대가 있었다"며 "핀테크 혁신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42건에서 100건으로 늘린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유니콘 기업

이 출연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규제 혁신과 핀테크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내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 보안 등에 문제가 없도록 테스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샌드박스제도로 불록체인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핵심적 기술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김흥일 디캠프 센터장(가운데)이 스타트업 기업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무임승차 해외기업 규제 강화해 제2 페북사태 막아야”

페북 판결로 본 정책 토론회

글로벌 기업 국내 잠식 유리 우려 가이드라인 집행 강화에 초점두고 인터넷·통신규제 합리화 등 '투트랙' ISP-CP 망이용료 갈등으로 확산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제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판결 이후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할별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글로벌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여야 관계없이 머리를 맞대고, 페이스북 판결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업자의 역할별 문제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기업 역할별 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기업(CP)과 통신사업자(ISP) 사이의 갈등으로 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페북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역할별 18일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이용자 규제를 위해 국내외 집행력 강화, 인터넷과 통신 규제 합리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외의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근거를 확대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핵심 이슈는 이용자 보호와 글로벌 집행력 확보 문제”라며 “규제 철폐 이슈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문제로 봐야 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확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적용대상으로 해외 사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 판결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잠식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달리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사업자 사이의 계약 문제로 남겨둔다면 협상력이 강한 글로벌 CP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렵고 국내 CP의 역할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가 대형 글로벌 CP에게 대응할 수 있다. 대응력이 부족할 경우 상호 접속 고시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용자 보호는 속지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글로벌 CP도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호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망 접속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를 담보로 통신사에 위협을 가한 것”이라며 “집행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 vs 인터넷기업 이번 페이스북 판결은 글로벌 사업자의

역차별 이슈와 함께 더 크게는 CP와 ISP 간의 망 사용료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높은 망 사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통신 사업자들의 과도한 망 이용료 부과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망 이용료 부담이 상호전산으로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망비용이 상승했다”며 “이용자보호 주체는 CP뿐 아니라 ISP도 포함되는 만큼 두 사업자 모두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외의 CP들은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1심 소송 이후 망 사용료 인상을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

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정책과장은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트래픽 교환에 대해 새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를 통해 국내 CP 망 이용료 부담이 과거보다 과도하게 인상됐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상호접속제도 연구를 통해 연말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페이스북 사건의 이면은 통신 사업자와 CP 간 망 이용대가 협상 우위 선점을 위한 사업자 간 다툼”이라며 “협상우위를 위해 사업자가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당국,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신인석 한은 금통위원 간담회 사실상 금리인하 주장



신인석 한은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신인석 한은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8일 지금과 같은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은의 금리정책마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화당국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그동안 금융안정에 더 치중돼 있었던 만큼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이 위축되기 전에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인석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켜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통화완화 선호)로 꼽힌다. 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조동철 위원과 함께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

은 2012년 2.2%를 기록한 뒤 2013~2018년 평균 1.3%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 0%대로 더 떨어졌다.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6년간 하회한 셈이다.

신 위원은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며 “6년간 계속 낮아진 물가 상승률이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2013년말 2.9%에서 올해 8월 기준 2.0%로 하락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롯데칠성음료

뜨거운 도시를
대시 청량한 색으로

초록이 지켜지는 세상

Re: fresh Re: green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용신미 올바르게

2022년 계속고용 강제 추진... 고령자 고용시 인센티브 ↑

정부, 정년연장 사실상 공식화

TF 꾸려 분야별 대응방안 논의 노인 위한 고령친화도시 설계 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 대비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협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설계하고, 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교원 양성규모 재검토하는 한편,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협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3월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나온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가지 중장기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년 늘리고 노인기준도 올린다

정부는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년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예

산 296억원을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정년연장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셈이다.

초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 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두번째 인구대책 분야로 학령인구 감

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젊은층 감소로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대비해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군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 병력은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번째 인구대책은 고령인구 대응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 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상향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아이 1명도 안 낳는 나라... 인구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정부가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늘리기 등 인구구조 변화별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선 것은 현재 심화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0.98명)인 유일한 국가로, 출생아도 30만명을 위협받는 수준이다. 반면 고령화속도를 더 빨라져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하고 유소년·학령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는 2033년 14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수수료 받아 회사와 반 나눠도 역대연봉”

>> 1년 '잔심부름에...' 서 계속

B증권사 PB는 “잘나가는 PB들은 차, 시계 등 명품을 공부해서 추천하고 와인, 미술 등도 공부해서 고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면서 “예전에 제일 큰 고객의 취미가 낚시여서 주말마다 낚시, 캠핑을 하러 많이 다녔다”고 했다.

◆“서비스를 넘어 신뢰를 쌓아야 돈을 맡긴다”

증권사 PB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 신뢰를 위해서”라고 답한다. 고객의 부탁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직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고객 자금을 모을 수 있다.

C증권사 PB는 “과거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 고객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60%까지 갔다. 그때 나조차도 확신없이 고객

에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고, 대부분의 VIP 고객이 내 말을 믿어주고 기다려줬다. 결국 1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모두 회복했다. 만약 그때 고객이 돈을 다 뺐으면 정말 살길이 막막했을 거다”고 말했다.

고객의 신뢰를 얻으면 증권사PB에게는 수익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큰 지점의 PB들은 수익원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월급에 VIP 고객을 통한 판매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A증권사 PB는 “펀드 판매 수수료가 1%라고 치면, 10억원어치만 팔아도 1000만원의 수익을 얻고 들어간다. 또 주식을 매매할 때도 0.5% 수수료를 받아서 1억원어치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1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번 수익을 회사와 반 나눠도 역대 연봉은 거뜰히 벌 수 있다”고 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중소기업 연구 인프라 갖춘 곳은 1%

부품 국산화 외치지만 갈 길 멀어 기존 연구소 수도권 쏠림현상 뚜렷

국내 중소기업 중 자체 연구 인프라(기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부품 국산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섰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중소기업은

360만882곳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는 4만906개, 연구원은 19만 3178명에 그쳤다. 전체 중소기업 수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비율은 1.1% 수준인 셈이다.

그나마 있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해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전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65%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했다. 전체 중소기업의 48%가 수도권에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란 평가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부

설 연구소의 분포 비중을 보면 경기(31.1%)와 서울(28.7%)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 지자체 중에선 5%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제주와 세종의 경우 나란히 0.4%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중소기업 기술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중소기업도 기술경쟁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국내 5대 발전소, 10년간 체선료로 4786억 지급

기상악화·정비공사 등 이유로 꼽아

국내 5대 발전소(기흥·정비공사 등)가 지난 10년간 기상악화·정비공사 등 이유로 화물을 제때 선적·하역하지 못해 선사(운송사업회사)에 지급한 체선료가 47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료는 선박에서 화물 양륙이 늦어져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한 요금이다.

1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받은 '2010년 이후 체선일 및 체선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전소기업 5개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사에 보상한 체선료는 4786억3700만원, 체선일은 2만3876

일이다.

체선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상 하루 체선료율에 초과시간을 곱해 산정한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1427억 3400만원(체선일 7335일)로 가장 많이 지급했다. 이어 서부발전 984억5000만원(4220일), 중부발전 878억9800만원(4385일), 남부발전 760억1700만원(4268일), 동서발전 735억8300만원(3668일)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체선료 증가율은 중부발전이 48%로 가장 가파른 수치를 보였다. 이어 서부발전 35%, 남부발전 29%, 동서발전 28%, 남동발전 23% 순이다.

남동발전은 다른 발전사에 비해 체선료·체선일이 많은 이유로 “연간 석탄사 용량이 타사 평균 대비 약 1.7배 높은 수

준”이라며 “배선계획의 난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급한 사례는 지난 2월 18일 서부발전이 일본 선사 M.O.L에 13억3700만원을 보상한 것이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가동이 멈추면서 해당 화물은 하역 대기했고, 이때 체선료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전소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체선료 증가는 영업이익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급선 다변화로 효율적 배선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 관리를 통해 체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도로공, 5년간 하이패스 요금 3.5억 더 걷어

전체 68%, 2억3873만원만 환불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요금을 3억5000만원 더 걷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도로공사 자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로공사가 초과로 걷은 하이패스 요금은 3억509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615만7000원(2129건) ▲2016년 1799만4000원(2516건) ▲2017년 9631만6000원(1만

3032건) ▲2018년 1억5185만원(2만565건) ▲올해 8월 말 기준 6858만5000원(9037건)이다. 특히 지난해 잘못 걷은 금액은 2015년 대비 3년 사이 9.4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전체 중 68%인 2억3873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시스템을 개선·보완해 과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KYOBOTO 신창재·윤열현 각자대표, 미래전략·마케팅 시너지

교보생명 각자대표체제 6개월

상반기 순익·재무건전성 제고
신창재 '장기전략' 모색 日 출장
윤열현 'V3' 오픈 막바지 점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윤열현 사장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과 윤열현 보험총괄담당 사장이 바쁜 추석 연휴를 보냈다. 신 회장은 저금리 국면을 타개할 회사의 '장기 전략'을 위해, 윤 사장은 차세대 시스템 'V3' 오픈을 위해 연휴를 반납했다. 두 대표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각자대표 체제도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1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은 연휴 동안 보험산업의 저금리·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으로 인해 여러

보험사가 도산하기도 했다. 아베노믹스로 회복에 나섰지만 최근 경기 하방 위험이 다시금 확대된 상황이다. 국내 보험업계도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역마진 확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회장은 이번 일본 출장을 통해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으로 최악의 저금리·저성장을 겪은 일본 전·현직 생명보험사 실무자들의 경험담을 듣고 반면 교사로 삼고자 했다.

같은 시간 윤열현 사장은 차세대 전

산시스템 'V3'의 막바지 점검에 바빴다.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이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다.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각 사업영역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고객정보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교보생명의 각자대표 체제도 6개월째 순항하고 있다. 그간 신 회장은 디지털 혁신, 신사업 등 장기 전략을 짜고 윤 사장은 마케팅 경쟁력 제고, 고객중심 영업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왔다.

신 회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이었다. 오픈 이노베이션 '이노스테이지(INNOSTAGE)'를 출범해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생보부동산신탁을 100% 자회사로 편입해 계열사 간 협업 강화 및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마케팅 부문 부사장을 역임한 '영업통' 윤 사장은 부임 이후 '고객중심 영업'을 기치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였다.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시작한 신계약 모니터링 외국어 상담 서비스, 대고객 챗봇서비스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보험업계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교보생명의 상반기 순이익과 재무건전성은 나란히 제고됐다.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으며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서 보험금지급능력 평가 최고등급 AAA를 받았다. 또 해외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5년 연속 A1 등급을 받아 국내 생명보험사 중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7일 강남역 소재 카페에서 취준생과 소통하는 채용상담회 '우리금융 잡 라운지(Job Lounge)'를 개최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 취준생 소통 '잡 라운지'

150명과 카페서 채용상담회 열어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소재 카페에서 취준생과 소통하는 채용상담회 '우리금융 잡 라운지(Job Lounge)'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채용상담회는 지난 9월부터 이틀간 사전신청을 받아 입사를 희망하는 150여명의 취준생들이 인사담당자 및 실무자들과 격의 없이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렛츠 우리 투게더(Let's WOORI together)'를 슬로건으로 우리금융그룹의 조직문화인 소통과 협업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채용상담회는 금융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카페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젊은층의 소통방식으로 채용 상담

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쉽게 질문하기 어려운 일반 취업 박람회와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20대 취준생들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채용상담회는 솔직함, 즐거움, 편안함을 동시에 줄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거리인 강남역 소재 카페에서 진행됐으며, 인사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직접 알려주는 직무 상담부터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설명회까지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23일 자정까지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 인재채용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아 취준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27일 '우리금융 인재 페스티벌(Festival)'을 개최한다. /홍민영 기자 hong93@

신한은행 연 3% 금리 '신한 마이홈 적금' 출시

1인 1계좌 가입, 1년 만기 상품

신한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가입해 연 3%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신한 마이홈 적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 마이홈 적금'은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당일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2%지만 적금 만기시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우대금리 1%를 더해 3%를 받을

수 있다.

마이홈 적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1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 외에 모바일뱅킹 솔(SOL)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이홈 적금을 신규한 고객은 자동으로 응모되며, 총 5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안상미 기자

KB국민銀, 기업 비대면 서비스 강화

인터넷·모바일뱅킹 전면 개편
사용성 개선 위해 디자인도 변화

KB국민은행은 기업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대면 업무를 비대면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모바일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별도 서류제출 없이 통장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스톱(One Stop) 신규 서비스'다.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 쉽고 빠른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가입 진행 중 다른 업무처리로 인해 거래가 중단돼도 당일 중 '이어하기' 기능을 제공한다. 법인에 대한 '원

스톱 신규 서비스'도 최종 테스트 단계에 있어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반복적인 로그인 없이 한번에 전체 사업장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기업통합ID서비스'와 모바일에서 쉽고 빠른 급여이체가 가능한 '퀵(Quick) 급여이체'도 신설했다.

고객 중심의 사용성 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등의 디자인도 새롭게 개편했다. 기업고객의 금융 스케줄 관리를 돕는 캘린더뱅킹 기능과 은행 담당자와의 직통전화로 통한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담당직원 안내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 빈도가 높은 이체거래를 통합하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사용하기 쉬운 뱅킹을 구현했다. 또 계좌 거래내역

등 다양한 조회 내용을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고객을 위해 검색어 입력을 통한 거래내역 추출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원샷 결산서류 서비스'에서는 기업이 결산에 필요한 서류를 기업인터넷뱅킹에서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동환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대표는 "지난해 6월 출시한 기업뱅킹 기반 자금관리 서비스인 '스타(Star) CMS'의 신규 유입고객이 현재까지 4만8000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기업뱅킹 고도화를 계기로 KB국민은행과 거래하는 기업고객들의 자금통합관리와 이체 등의 금융업무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상호금융, 올 상반기 순익 1.5조... 13.7% ↓

(전년 동기 대비)

농산물가 하락 등 경제부진 손실 커

올해 상반기 신탁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실적이 악화됐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사업 부문에서 손실이 확대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2231개 상호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조5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다.

신용사업 순이익은 2조50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경제사업 손실은 9496억원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30억원보다 손실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농협의 당기순이익이 1조36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신용사업 이익은 늘었지만 경제사업 손실이 커졌다.

신탁(당기순이익 1664억원)과 수협

(상호금융조합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8년 상반기(A)			'19년 상반기(B)			증감(률)(B-A)		
	신용	경제 ^{주)}	합계	신용	경제 ^{주)}	합계	신용	경제 ^{주)}	합계
신탁	2,463	51	2,514	1,613	51	1,664	△850	0	△850 (△33.8)
농협	21,007	△6,256	14,751	22,945	△9,294	13,651	1,938	△3,038	△1,100 (△7.5)
수협	907	△254	653	545	△390	155	△362	△136	△498 (△76.3)
산림	5	129	134	△31	137	106	△36	8	△28 (△20.9)
합계	24,382	△6,330	18,052	25,072	△9,496	15,576	690	△3,166	△2,476 (△13.7)

주) 신탁(복지사업, 농협) 농식품 판매, (수협) 수산물 판매,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

(115억원) 및 산림조합(1106억원)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올해 상반기 중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6%로 전년 동기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전년 동기 대비 1.98%포인트 낮아진 8.21%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 총자산은 5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4% 증가했다.

총여신은 357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8% 늘었다. 총수신은 450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2% 증가했다.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87%로 전년 말 대비 0.55%포인트 상승했다. 고정비하여신비율 역시 전년 말 대비 0.51%포인트 높아진 2.03%다.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비하여신)은 121.5%로 전년 말 대비 41.4%포인트 하락했다. /안상미 기자

포스코, 새로운 환경기준 시행 대비 고합금 스테인리스강 양산체제 구축

탈황설비용 강제 국산화 성공
납기 단축·안정적 소재 공급

포스코가 전 세계 선박에 대한 새로운 환경기준의 시행에 앞서 탈황설비에 필수적인 고합금 스테인리스강 양산체제를 갖추고 판매확대에 나섰다.

18일 포스코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IMO 2020'은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박 배출가스 환경 규제,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율을 현행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저감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IMO 2020을 만족하는 방법으로는 탈황설비 설치, 저유황연료 사용, LNG연료 대체 등이 있다. 이 중 선박용 탈황설비는 고유황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을 90%가량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저가 고유황연료(HSFO)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올해부터 5년간 1만 2000척 이상의 선박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품질, 생산, 연구소 등 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CFT(Cross Functional Team)를 만들고, 올해 초 탈황설비용 고합금 스테인리스강재인 'S31254'강 양산에 성공해 현대중공업과 위시스템, 강림중공업, STI 등 국내 탈



선박용 탈황설비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황설비 설계 및 제작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탈황설비 강재는 통상몰리브덴이 6% 이상 함유된 '6Mo(6몰리)'강을 사용하는데, 포스코가 개발한 'S31254'강 역시 6Mo강 중 하나로 포스코의 월드 톱프리미엄 제품이다.

지난해까지 탈황설비용 강재는 소수의 해외제철소에서만 생산되어 국내 고객들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포스코가 국산화함으로써 8개월 이상의 긴 납기가 단축되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줄어 안정적인 소재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 포스코는 고합금 스테인리스강재 사용 경험이 적은 고객사들을 위해 용접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선박 탈황설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집진기 등 육상환경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는 'S31254'강 판매를 확대해 나아가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노사갈등·수주난... 현대중 '내우외환'

노조, 26일 4시간 부분파업 결정
사측, 조선산업 불황에 부담 커져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추석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치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6일 4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11월 새 노조집행부 선거 전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관계자는 "집중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면파업보다는 부분파업을 하면서 사측과의 의견 차이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9일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5월 2일 노사 상견례 뒤 추석 전인 9월 10일까지 12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노

조는 교섭 마무리를 위해 회사에 일괄 제시안을 내라는 입장을 세웠지만 사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6.68%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단행한 법인분할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엔 조선 산업 불황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개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는 수주 실적이 40.5% 급감하며 연간 수주목표인 159억 달러의 31.4%에 그쳤다. /정연우 기자 ywi964@

SKB, 농아인 위한 방송서비스 시작

B tv 통해 '스마트 수어방송' 제공

SK브로드밴드는 취약계층 사회적 차별해소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TV 시청 편의성 개선을 위해 인터넷 TV(IPTV) 사업자 최초로 농아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을 B tv 주력 셋톱박스에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시청자가 수어 영상의 크기, 위치 등을 자유롭게 조정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책사업에 SK브로드밴드가 IPTV 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지난 7월 첫 상용화 후 이번에 UHD, AI 등 주력 셋톱박스 전체에 탑재하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기획 단계부터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실사용자인 농아인의 의견을 수렴, UI·UX를 개선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화웨이 제재·갤노트 10 흥행까지 날개 단 삼성전자, 점유율 '쑥쑥'

수요 높은 중남미·중동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갤럭시폴드에 세계 관심도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저렴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화웨이 제품을 대체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출시된 '갤럭시노트10' 흥행과 함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로 폼팩터 혁신까지 이루면서 하반기 성장이 기대된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높은 중남미와 중동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중동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차지했다. 시장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삼성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1%, 전년 대비 8%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화웨이의 점유율은 20%에 그쳤다. 카운터포인트 피터 리처드슨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최근 출시한 A시리즈가 화웨이와 아너의 브랜드를 대체하면서 화웨이 제재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2분기 중남미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난 4월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A30'. 출고는 34만 9800원이다. /삼성전자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42.8%를 기록했다. 3위를 차지한 화웨이는 2분기가 시작될 당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모토로라를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했으나, 지난 5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면서 뒤로 밀려났다.

화웨이는 지난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으로 애플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면서 선두인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혀왔다. 하지만 지난 5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거래중단 제재 조치가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년 대비 4.6% 성장하긴 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3분기에는 타격이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 자국에서 성장률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분기

중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선두를 지켰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이달 말 5G를 상용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5G 스마트폰으로 중국 소비자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였던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60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9.8%로 2위를 기록했다. 샤오미(7.2%), 소니(7.0%) 등 일본 기업보다도 순위가 높다. 삼성은 이같은 성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마케팅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일본 도쿄에 전 세계 갤럭시 쇼케이스 중 최대 규모인 '갤럭시 하라주쿠'를 개관하며 일본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신제품 갤럭시노트10도 흥행하고 있다.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갤럭시노트10의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기록했다. 출시 25일 만의 기록으로 역대 최단 기간이다.

갤럭시폴드에 대한 전세계 관심도 높다. 지난주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베이에서는 갤럭시 폴드 2대가 3900달러(약 463만원)에 거래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전자, '씽큐' 앱 앞세워 중동·아프리카 공략

브랜드샵 420㎡ 규모로 조성
체험존 통해 인공지능 가전 확인

LG전자가 'LG 씽큐'를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공략을 본격화한다.

LG전자는 12일 이집트 뉴카이로에 오픈한 브랜드샵에 'LG 씽큐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브랜드샵은 뉴카이로 고급 주거지 인근에 420㎡ 규모로 조성됐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함이다.

LG전자는 2019년형 TV 음성 인식에 아랍어를 지원하며 중동 시장 공략을 선언한 바 있다. LG올레드 AI 씽큐



LG전자는 뉴카이로에 LG 씽큐 체험존을 열었다. /LG전자

와 LG 나노셀 AI 씽큐 등 제품이다. 체험존은 LG 시그니처 제품과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제품을 확인하고, 'LG 씽큐' 앱을 통해 인공지능 가전을

직접 제어해볼 수 있다.

LG전자는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핵심 상권에 체험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KT,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 세계최초 개발

하드웨어 구조 없이도 동기신호 추출

KT가 자체 기술을 통해 실내·지하의 5세대(5G)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늘린다. KT는 5G RF 중계기의 성능·효율을 극대화한 '5G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을 상용화하고, 5G 인빌딩 커버리지 확대를 가속화해 나간다고 18일 밝혔다.

KT는 RF 중계기와 5G 기지국 간

동기화 과정에서 복잡한 전자부품이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구조 없이도 정확한 동기 신호 추출이 가능한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RF 중계기에 상용 적용했다.

5G RF 중계기는 5G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실내 중층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해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다. 대형 건물에 주로 설치되는 광중계기와 달리 광 전송라인 연결

없이 무선으로 5G 기지국과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장비에서 동시에 송신과 수신을 하기 위해 자원 분할을 통한 다중통신방식을 사용한다. 5G의 경우 일반적으로 TDD(시간 분할 방식)를 사용하고 있어 기지국과 RF 중계기 간의 통신을 위해 동기 신호 획득이 필수적이다.

/김나인 기자

2019년 하반기 첨단기술 지능 테스트 SK하이닉스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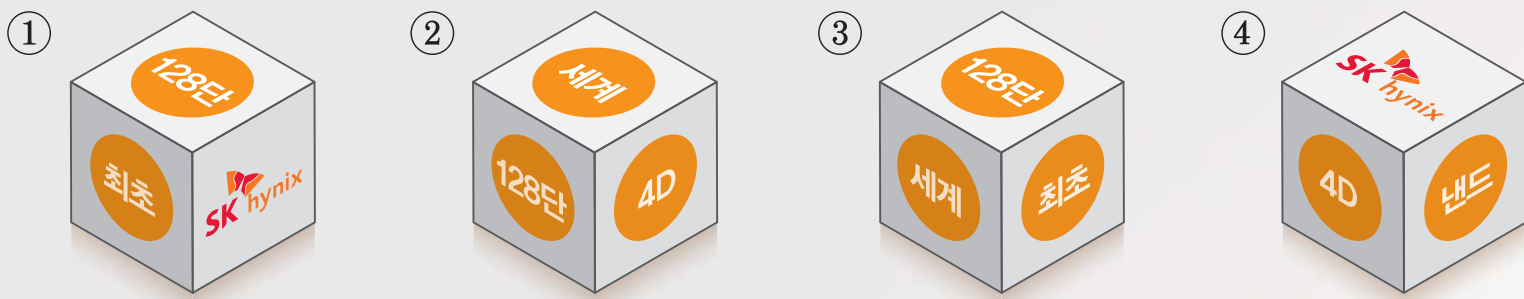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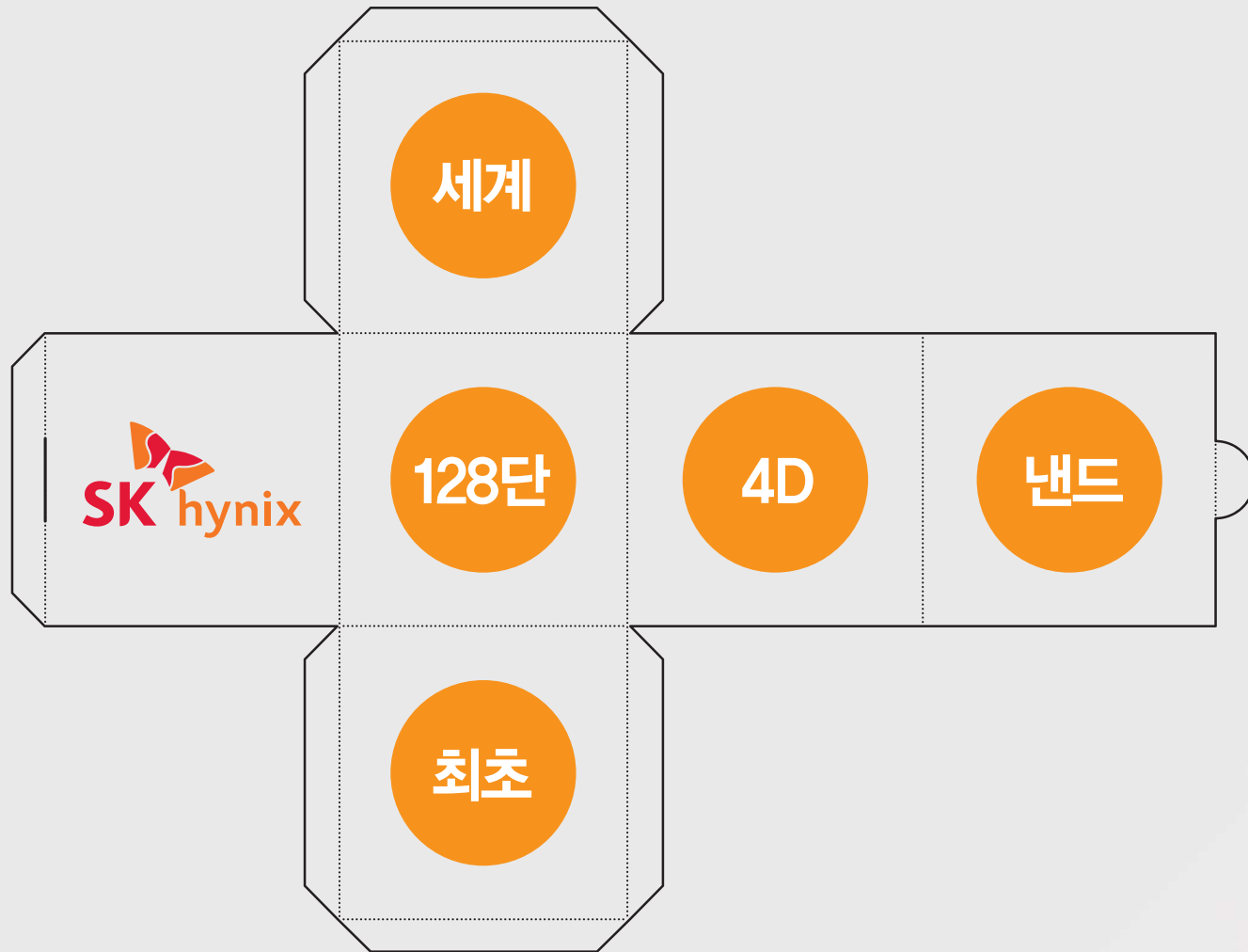
제2교시

난이도 : 中

신기술 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8단 1Tb(테라비트) 4D 낸드플래시를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96단 4D 낸드플래시 개발 이후 8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4D 영화 관람권과 큐브가 선물로 지급되었는데, 이 큐브의 전개도를 접으면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이 큐브는 SK하이닉스 4D 128Tb 낸드플래시 개발을 기념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큐브를 접으면 SK하이닉스 4D 128Tb 낸드플래시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SK hynix

“싹!” 소리없이 日製 앞선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차

그랜저, 최단기간 2만대 판매
쏘나타, 솔라루프 시스템 탑재
3년연속 20만대 이상 팔려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하이브리드차(HEV)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도요타를 포함한 일본 업체들이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그랜저와 쏘나타, K5, K7 등 주력 세단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 가격경쟁력과 연료효율성 등 기술 경쟁력을 통해 판매량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플래그십세

단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은 올해 판매량 2만대를 넘어서며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8개월 10영업일 만에 세운 기록으로 지난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세운 최단기간 연 2만대 판매 기록(10개월 3영업일)에서 약 2개월을 단축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국내 시장 최초로 연간 판매 3만대를 넘어서고,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최초로 누적 판매 10만대 돌파도 유력하다.

현대차가 올해 초 출시한 8세대 쏘나타를 기반으로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쏘나타 하이브리드도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7월 말 출시 이후 8월 휴가기간과 9월 추

석연휴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수가 3600대 이상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태양광으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해 주행가능거리를 1년에 최대 1300km 증가시키는 ‘솔라루프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한층 더 진보한 친환경차로 각광 받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개발한 능동 변속제어 기술(ASC)을 적용해 기존 차량 대비 30% 빠른 변속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타인과 자동차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키 시스템 등 첨단기능들을 대거 탑재해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현대·기아차는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모델 판매량을 확대하며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한 하이브리드차는 국내 34만1702대, 해외 66만6136대 등 총 100만7838대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현대차가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모델 국내 출시로 친환경차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이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차 글로벌

누적판매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연간 판매 10만대를 넘어선데 이어 1년만인 2017년에는 20만대 고지를 밟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11만7109대를 판매해 3년연속 20만대 이상 판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누적 판매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베스트셀링카는 기아차 니로이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 인기로 같은기간 31만8917대가 판매돼 100만 돌파의 주된 동력이 됐다. 니로는 내수시장에서도 사상최대 판매를 올리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역대급 신차 및 라인업 확대로 가파

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차가 투싼과 쏘나타, 기아차는 쏘렌토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각각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은 10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 소비자 선택의 폭도 크게 넓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종료와 일반차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국산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현대·기아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라인업 확대를 통해 내수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LG유플러스 모델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에서 한복을 입고 ‘U+로드’ 프로모션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경북공 서촌에 ‘U+로드’ 운영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19개 상점서 멤버십 혜택

LG유플러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생활문화지원을 위해 ‘2019 종로 한복축제’를 후원한다.

이와 연계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에서 골목 상권 프로젝트 ‘U+로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U+로드는 LG유플러스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 상권과 제휴해 최대 50% 할인,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이다.

서촌마을, 중구 필동, 인천개항장, 경리단길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18년 최초로 U+로드 행사를 진행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 서촌마을을 다시 찾아간다.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서촌마을은 한옥마을, 통인시장 등 많은 볼거리와 음식점 및 상점이 있어 가족,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유명하다.

LG유플러스는 자하문로7길에 위치

한 19개 상점에서 모바일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통인스윗’, ‘카페피움’ 등 7개 카페와 ‘영화루’, ‘취천루’ 등 8개 음식점에서 이벤트 상품 주문 시 50% 할인 또는 1+1 혜택을 제공한다.

의류점인 ‘H컬렉션’은 남성 셔츠를 할인 금액에 제공하고, 액세서리 전문점 ‘모메이’는 은 팔찌를 50% 할인한다.

LG유플러스는 U+로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현장 참여 이벤트를 마련했다. 제휴 상점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응모권을 작성해 서촌 거리에 있는 이벤트 부스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LG푸리카어미니’ 등의 경품을 제공하고, 하루 선착순 30명에게는 제휴 상점 두 곳 이상 방문시 ‘경복궁 야간특별관람권’을 증정한다.

U+로드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은 U+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받을 수 있다. 할인율과 혜택은 제휴 상점 및 제품별로 상이하다. 경품 당첨자는 10월 8일 이후에 개별 연락 받는다.

/김나연 기자 silkni@

운전석 오른쪽도 안전... 차세대 에어백 개발

현대·기아차 국내외 특허 획득
측면 충돌시 운전자 부상 최소화
시트 배열 자유롭게 이동 가능

현대·기아자동차가 센터 사이드 에어백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출시되는 신차에 적용한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측면 충돌 시 탑승자의 부상을 최소화해주는 첨단 안전기술이다.

18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펼쳐져 승객 사이의 신체 충돌로 인한 부상을 막아준다. 운전자 혼자 탑승한 경우에도 작동해 보조석 쪽의 측면 충격이나 유리 조각 등 충돌 파편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한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운전석 시트 오른쪽 내부에 장착돼 있는데, 충격이 감지되면 0.03초만에 부풀어 오른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ACEA)의 통계에 따르면 차량 측면 충돌 사고 시 탑승자끼리의 충돌이나 내장재 또는 파편의 충격으로 인한 2차 피해 비율이 약 45%에 이른다. 특히 탑승자의 머리끼리



현대기아자동차가 개발한 센터사이드 에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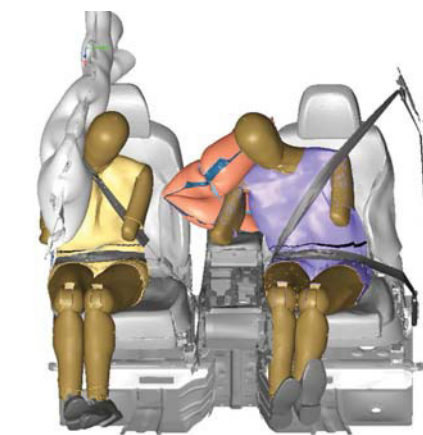
충돌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개발한 센터사이드 에어백은 승객간 충돌 사고로 인한 머리 상해를 약 8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자체 실험 결과 나타났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에 독자적인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형태를 완성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를 획득했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에는 에어백이 힘없이 펼쳐지지 않고 탑승자의 하중을 지지해줄 수 있도록 ‘데더’라는 끈 모양의 부품이 에어백을 감싸며 잡아주는 데, 현대·기아차는 데더와 에어백의 형태를 간결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1kg이 넘는 타사 제품 대비 약 50%의 중량 절

감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얇은 시트를 비롯해 다양한 차종에도 장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 시트 배열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미래 자율주행차에는 에어백이 시트에 장착되는 방식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기아차의 에어백 소형·경량화 기술은 미래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에어백의 활용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 순차적으로 탑재함으로써 국내외 안전평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기아차 센터사이드 에어백.

LS니꼬동제련, 협력사 초청 화합 도모

LS 니꼬동제련이 동제련업계를 불러모아 화합을 다짐했다.

LS니꼬동제련은 18일 온산제련소에서 ‘2019 전기동 고객사 파트너스 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시영 대창 회장과 박우동 풍산 사장, 손인국 이구산업 회장 등 10개 고객사 핵심인사 16명이 참가해 제련소를 견학하고 기술력과 혁신

을 확인했다.

특히 LS니꼬동제련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인 ‘ODS 프로젝트’ 준비과정과 현황을 소개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서 간담회를 통해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를 돈독히 했다. 원료 확보경쟁과 제조비 상승 등 이슈에도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LS니꼬동 제련은 동가공협회 회원

사로 파트너사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협력사 임원을 대상으로 헛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사장은 “LS니꼬동제련이 세계적인 제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고객사들의 신뢰와 협력이었다”며 “대한민국 동산업계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사들과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가치주 vs 성장주’... 韓美증시 엇갈린 행보

美 8월 하락했던 채권금리 반등 국내증권업계 “성장주 매수 추천” 내년 이익 모멘텀 개선업종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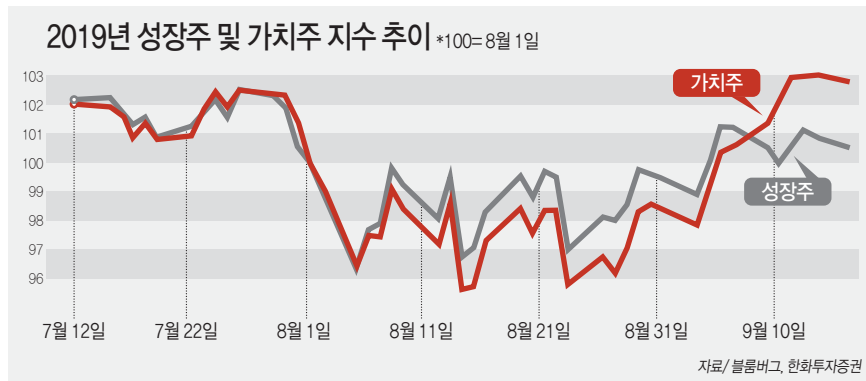
미국 증시에선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강세를 보이는 등 ‘가치주의 귀환’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 증시에선 ‘가치주보다 성장주’라는 분석이어서 대조적이다.

미 증시에서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성장주가 최근 1주 및 1개월 간 가치주 대비 부진한 흐름이 뚜렷하다.

S&P500 지수에서도 지난 달 초가 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모멘텀주는 지난달 27일 하락하며 2009년 3월 이후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여줬다.

CNBC 등 주요 외신들은 최근 가치주가 모멘텀주 수익률을 넘어서는 로테이션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 증시에서 모멘텀주에서 가치주로 투자자들이 이동한 것은 이들이 금리 상승에 베풀고 있기 때문이



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주식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안정적인 기업이 주목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미국 증시에서 단기적인 가치주 회복 이후 성장주 중심 켈리는 계속돼 왔지만 최근 가치주의 강세가 뚜렷하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1주일 간 성장주를 대표하는 러셀 그로스(Russel Growth) 수익률이 -0.49%를 기록한 데 반해 가치주를 상징하는 러셀 밸류(Russel Val

ue)는 2.41%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며 “월간 기준으로도 각각 2.43%, 5.44%로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2012년, 2016년 가치주의 귀환이 ‘Non US 정책’ 출현과 함께 했는데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과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Non US 정책조합을 기대할 수 있어 가치주의 상대수익률 회복을 점쳐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최보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고, 변동성이 낮고, 가치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며 “최근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만큼 단기적으로 가치주 위주 접근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국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각국의 금리인하가 본격화된 만큼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매수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는 8월 크게 하락했던 채권금리가 다시 반등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성장주의 최근 1주와 1개월 수익률이 가치주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현 시점에서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투자 매력에 높다”며 “성장주 중 내년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업종으로 반도체·조선·IT하드웨어·자동차업종을 꼽았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한국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설명회

한국투자증권은 예비 투자권유대행인(이하 FC)을 대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25일 서울 강남대로 지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투자 FC 제도 소개와 투자권유대행인 지원프로그램 및 영업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사전 신청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FC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나 Prime고객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증권사의 이유있는 ‘스포츠 마케팅’

구단 운영·선수 후원 과감한 투자 타깃층·이미지·광고효과 1석3조 시즌 기간 브랜드 노출 효과 커

주요 증권사의 ‘스포츠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포츠의 주 소비층이 증권사 타깃과 일치하는 데다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이 증권사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증권사들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 로고를 노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구단을 운영하거나 유망한 선수를 꾸준히 후원하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공식 후원하는 키움히어로즈가 2019년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야구 마케팅’이 성공적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키움히어로즈는 정규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해 11월 히어

로즈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연 100억원, 계약기간 5년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투자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그동안에도 야구 마케팅에 많은 지출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업계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브랜드 노출 효과가 상당하다. 시즌 기간 동안에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번 방송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은 안타 등을 때려낸 뒤 키움의 ‘K’를 손으로 그리는 것을 공식 세레머니로 활용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야구가 인기 스포츠인데다 성적도 좋아서 스폰서 기업으로써 내부 분위기도 좋다”면서 “야구와 증권사 모두 만족하는 결과”라고 전했다.

NH투자증권은 골프단을 운영하고, 골프 대회를 주최하며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올해로 12 회째를 맞이해 공신력 있는 경기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이미림과 KPGA 투어의 이승현, 박민지, 이가영에 정윤지 등 5명의 여성 골퍼를 후원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 프로골프단은 올해 보그너 MBN 여자오픈을 우승한 박민지 선수를 포함, 통산 21승을 기록하며 금융계 골프명가로 발돋움 하고 있다”면서 “특히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KPGA 대회 중 가장 많은 갤러리가 모이는 대회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브랜드 가치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대한당구



키움히어로즈의 한 선수가 안타로 출루한 이후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맹의 공식 후원사다. 당구연맹에서 주최하는 모든 경기에 후원사로 노출된다. 선수 유니폼, 경기장, 대기석 등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 로고(CI)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당구의 연령층이 30~50대 남성들이라는 점에서 증권사 고객 타겟과 일치한다”면서 “아직 당구에 대한 후원 협찬사들이 많지 않아 스포츠마케팅의 ‘블루오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ij301@

신한금융투자 신한 차이나그로스랩

신한금융투자는 중국 및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투자하는 ‘신한 차이나그로스랩’ 서비스를 실시한다. 차이나그로스랩은 임캐피탈파트너스(IM Capital Partners)의 자문을 받아 중국 우량기업을 집중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서비스다. 이 랩어카운트를 자문하는 임캐피탈파트너스는 홍콩 소재 현지 자문사로 핵심 운용 인력의 운용 경력이 평균 14년으로 오랜 운용 경력을 가지고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며 수수료는 선취수수료 1.0% (최초 1회), 후취수수료 연 2.0% (분기후취, 자문수수료 0.75% 포함)가 발생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키움증권 SK하이닉스 ELS 출시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와 글로벌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출시했다. ‘키움 제1119회 ELS’는 만기 3년, 예상수익률 세전 연 8.5%이다. 기초자산은 SK하이닉스 보통주와 EUROSTOXX50지수, HSCEI지수이다.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ELS로,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 (6·12개월), 85% (18·24개월), 80% (30개월), 75% (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8.5%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세전 25.5% (연 8.5%)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김유진 기자

아이씨케이, 소비자주도 신개념 결제시스템 확대

결제플랫폼 ‘셀피’ 한국 사업 진행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로운 플랫폼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스마트카드 전문 제조업체인 아이씨케이가 소비자주도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간편 결제 시장 확대에 나선다.

아이씨케이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에 본사를 둔 엔트앤비가 개발한 차세대 결제 플랫폼 ‘셀피(Cellfie)’의 국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기술 개발을 마친 상태로 연내 북미시장 서비스 진행을 목표로 현재 글로벌

카드사의 인증을 진행 중이다.

셀피의 한국사업을 진행할 아이씨케이는 지난 1998년 11월 설립된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스마트카드 전문 제조기업이다.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제이씨비, 아멕스 등의 제조 인증을 받아 은행 및 카드사로 신용카드를 공급하고 있다.

셀피는 결제 정보 주도권을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 시켜 결제 편의를 높이고 금융 보안을 극대화해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로운 신개념 결제 플랫폼이다.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은 포스(POS)

나 카드 단말기를 통해 개인의 결제 정보를 VAN, PG사에 위탁해 조회하고 카드사로 결제 요청하던 방식이었다. 새로운 셀피 플랫폼은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일시적으로 가맹점(판매상)의 POS나 신용카드 조리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정보를 취득해 자신의 실물(신용카드와 마일리지, 포인트, 각종 페이 등의 결제 옵션)으로 직접 결제하는 소비자주도 결제 플랫폼이다.

판매자 정보는 QR코드, 바코드, NF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어 오프라인 매장부터 홈쇼

핑, 온라인, 모바일 등 결제 시장에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결제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에 높은 수수료의 비대면 결제도 대면 결제 수준으로 결제수료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해당 플랫폼이 결제 시장에 상용화되면 그동안 결제정보 도용 및 불법 사용에 따라 카드사와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된 리스크 비용을 없앨 수 있어 카드사의 결제수수료 추가 인하도 기대된다.

플랫폼 개발사인 엔트앤비는 글로벌 카드사의 인증을 연내 마무리하고 서비스 수요가 높은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결제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민생은 암초 투성인데... 여야 힘겨루며 日 대응 '뒷전'

日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8월 중순 마지막 회의 '유명무실'
정기국회 첫 발도 못때고 파행
'조국 대선' 몰두에 국민 질타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영 국회의장이 사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기국회 파행은 물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목소리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경기 악화가 심화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18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수출규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나 항방에 대한 정치권의 발표는 전혀 없었다. 이해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각별히 대처해야 할 것 같다"

고 원론적인 말만 남겼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경우 이날도 조 장관 퇴진과 여권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다.

현재 국내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이 무인기 폭격을 받으면서 나라에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산업계는 사우디 원유시설 공습으로 하루 1000만 배럴의 석유 생산이

멈추면서 세계 원유공급량 기준 5%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유가가 최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 수출량은 2017년 기준 968억2000만달러로 반도체 다음으로 많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연이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약제가 겹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

응은 상당히 미지근하다.

여당은 앞서 일본의 한국 압박을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전면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9월에 들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도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만 회의 결과를 종종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도 정진석 의원을 필두로 한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지난달 초 이후 주목할 만한 행보는 없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이른바 '사발 릴레이'로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온다.

초당적 대응을 위해 7월 말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민간·관료·정치) 협의회'도 지난달 14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조직으로 전락했다. 앞서 여야 5당과 청와대·정부·경제단체·노동조합 등의 참여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다음 회의는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올해 정기회의 세부 일정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안을 마련해도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진영대결을 멈추고 입법이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경없는 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본”

文 대통령 '국경없는기자회' 접견

“가짜뉴스가 공정한 언론 해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만나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들루아르 사무총장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SF가 그동안 전세계 언론자유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우리나라 언론자유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RSF 노력 덕분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본다”며 “우선 생각이 다른 사람들간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RSF가 앞으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노력하겠다”며 “(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자본·제도·허위정보·오보 등이 있다. (여기에는) 근거 없는 소문·광고·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전세계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그 대책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당정, 형사·공판부 강화... '검찰개혁' 시동

법무·검찰개혁 방안 협의회 실시
조국 사건 종결후 공보준칙 개정 적용

당정(여당·정부)은 18일 검찰 조직 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 검찰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특별수사부(특수부)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먼저 회의 후 “당정은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적으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보준칙 개정은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장은 다만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진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국회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법률 개정 없이 구성이 가능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설치와 향후 개혁 추진 방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임차인의 장기 임차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

던 특혜를 확대한 것이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바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상가 건물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형사절차에서는 국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번호 제도를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판보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선번호사는 주로 피고인에게만 제공했다.

/석대성 기자

항공사 5년간 과징금 358억... 제주항공 1위

이용호 의원 “안전불감증 여전”

국토교통부가 국내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최근 5년간 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계의 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를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총 358억1060만원이다. 위반 행위 발생의 경우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13건에 달

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위반 행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9개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았다. /석대성 기자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산하리라는 운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파할 지경...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에서

우리 몸에 좋은 국내산

메밀

봉평촌에서 정직하게 생산합니다.

막국수 전문점에서 인정하는 메밀꽃필무렵 봉평촌
업소용 막국수가루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www.bongpyung.com

메밀꽃필무렵 봉평촌 ▼ 검색



- emart
- Home plus
- MEGA MART
- 신세계백화점
- 롯데백화점
- 홍원막국수
- 농협하나로마트
- GS
- KIM'S CLUB
- HYUNDAI DEPARTMENT STORE
- 천서리 봉천 막국수
- 비와별 닭갈비

전국 대리점 및 농협 위탁 대리점 모집 T.033-333-8942 [주]봉평농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등길 18-10 Tel.033.333.8942

가을분양

가을 아파트 분양 시즌이 본격화 된다. 서울 일부지역에서 다시 집값이 들쭉이 고 있어 내집마련 수요자들도 바빠지는 형국이다. 특히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분양 단지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절실해졌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내집마련을 미루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견본주택마다 청약자들이 넘치는 분위기다. 건설업체도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가 많아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매제한과 거주기간 등이 늘면서 분양 시장이 위축돼 공급이 줄고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을 분양 시장에서 알짜 단지들이 대거 등장해 수요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청약조건과 전매제한 등 규제가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도 많은 편이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쇼핑·문화시설 즐비 청담역 인근 '노른자'

삼성물산 |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을 통해 짓는 '래미안 라클래시(삼성동 상아2차)' 679가구 중 11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가구수는 ▲71㎡ A타입 17가구 ▲71㎡ B타입 18가구 ▲71㎡ C타입 8가구 ▲84㎡ A타입 26가구 ▲84㎡ B타입 23가구 ▲84㎡ C타입 20가구다.

'래미안 라클래시(삼성동 상아2차)'는 10여 년 만에 삼성동에서 선보이는 래미안 아파트로 1층 전체 필로티를 적용하고 게스트하우스, 개방형 발코니, 세대창고 등 알파공간을 제공한다. 단지 중심부에는 소품, 휴게공간과 수공간이 어우러진 갤러리가로 설치되며 곳곳에 주민들의 놀이 및 운동시설을 배치한다. 사우나를 비롯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키즈룸 등이 들어간 커뮤니티센터도 마련된다.

'래미안 라클래시(삼성동 상아2차)'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인접해 있는 아파트다. 주변에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갤러리아 명품관,



청담동 명품거리 등 쇼핑, 문화시설이 가깝고 청담근린공원이 인접해 있다.

삼성동은 아파트 단지와 고급빌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고급주거지로 형성되어 있고 코엑스 등 대형 복합문화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여러 개발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장 주목 받는 사업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이다. 도심 개발의 대안으로 계획된 이 프로젝트는 2호선 삼성역(삼성역 사거리)과 9호선 봉은사역(코엑스 사거리)의 지하공간을 철도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등 복합환승시설과 상업, 문화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조성하는 것이다. (02)401-3301

원룸부터 펜트하우스까지 '주거 다양화'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 중앙역

현대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7, 537-8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 중앙역' 오피스텔 20~57㎡ 702실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 중앙역은 원룸부터 신혼부부, 3인 가족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맞춤형 평면 및 최상층 펜트하우스, 테라스, 다락 특화세대 등이 적용된다.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 중앙역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4호선 과천선(금정~남태령 구간) 급행화 사업이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신안산선, 수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 인근 안산중앙공원과 안산천, 원고잔공원 등이 가깝다. 안산 사이언스벨리에는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농어촌연구원, LG이노텍, 고려대 안산병원, 한양대 ERICA캠퍼스, 다국적 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등 2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안산시 최초의 '힐스테이트'는 단지 내 스카이라이프와



볼륨감 있는 입면 디자인이 적용된 트리플 타워다. 특히 단지 사이를 잇는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안산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차별화된 특화설계다.

커뮤니티 내에는 북카페, 클럽라운지, 릴렉스존, 플레이존, 독서실, 공유회의실, 코인세탁실 등 7개 존이 조성된다. 4층과 옥상공원에는 스포츠존(피트니스 클럽, GX룸, 샤워시설 등)을 구현한다. 단지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길이 130m의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 중앙역 내 상업시설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인도어(Indoor) 상가와 스트리트형 상가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형 상가로 조성된다. (1644-7377)

주례역 3분 '초역세권'... 사상 스마트시티

롯데건설 | 부산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롯데건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구역 재개발을 통해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998가구 가운데 59~84㎡ 80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59㎡ 25가구 ▲73㎡ 129가구 ▲84㎡A 154가구 ▲84㎡B 94가구 ▲84㎡C 401가구 등이다.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는 '사상 스마트시티'의 배후 주거단지란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사상공단은 부산시가 '사상 스마트시티'로 개발해 오는 2023년까지 '스마트시티 혁신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콤플렉스 내에는 기업지원복합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선다. 또 부산시 서부산청사사와 비즈니스 센터 건립은 물론, 감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

부산지하철 주례역 8번 출구가 단지과 도보 3분 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도심권역인 서면역으로 바로 연결되며 서부시외버스터미널과 동서고속도로, 김해국제공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는 지역 대표 브랜드인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된



다. 먼저 올해 초 롯데건설이 새롭게 선보인 차세대 외관 디자인인 '롯데캐슬 3.0'을 적용한다. 4-베이(bay) 판상형과 3-베이(bay) 타워형으로 구성되며, 수요자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한다. 전 가구 남향 위주로 일자형 배치를 통해 통풍력을 확보하고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공급된 기존 도시정비사업 분양 단지 대비 견뎌움이 우수하다. 대지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이 약 12%로 낮아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로 만든다. 견본주택은 부산지하철 3호선 거제역 1번 출구 인근 롯데건설 주택전시관(연제구 월드컵대로 185)에 조성 중이다. (051)894-7700

주거·상업·행정·문화·자연 '5박자' 조화

한화건설 |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한화건설은 오는 10월 친환경생태도시인 전주에코시티에 복합단지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를 분양한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2블록에 위치하며 아파트 4개, 오피스텔 2개의 복합단지다. 주거 시설은 84~172㎡ 아파트 614가구와 84㎡ 단일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203가구다. 타입별 세대수는 아파트가 ▲84㎡ 210가구 ▲116㎡A 119가구 ▲116㎡B 38가구 ▲120㎡ 122가구 ▲130㎡ 121가구 ▲163~172㎡ 4가구며, 오피스텔은 ▲84㎡A 127가구 ▲84㎡B 76가구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상업시설은 그라운드 1층(G1)과 지상 1층, 약 170m 길이의 스트리트형으로 설계된다. 에코시티 내 입주자 3만2000여명, 공원(세병공원·세병호) 방문객 등의 고정수요 뿐 아니라 단지 우측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다.

에코시티는 송천동 일대 199만㎡ 규모 부지에 1만3100여가구가 계획된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다. 에코시티는 주거와 상업, 행정,



문화,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건설된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에코시티 내에서도 세병공원(세병호)과 맞닿아 있는 핵심 입지다.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공원 조망이 가능하며, 인근 백석저수지, 건지산, 전주동물원, 전주덕진공원 등도 10분 내외 거리다.

KTX 전주역이 차로 10분대 거리이며, 호남고속도로(전주IC), 익산포항고속도로(완주IC), 순천완주고속도로(동전주IC) 등을 통할 수 있다. 에코시티 내 화정초와 화정중(2020년 개교 예정)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키즈도서관, 수영장, 주민센터 등이 들어서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2022년 예정)도 조성된다. (1644-4994)



양 '물량 풍성'... 상한제 시행 전 알짜단지 찾아라

부산 서면 인접 직주근접 '신흥 주거타운'

대림산업 |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

대림산업은 이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87 일원에서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 아파트 59~84㎡ 998가구와 83㎡의 오피스텔 52실 등 1050가구 가운데 아파트 224가구와 오피스텔 52실을 일반 공급한다.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은 부산 최고 중심 업무 지역인 서면과 인접한 직주근접 단지다. 단지 인근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과 부암역, 1호선 범내골역이 위치해 있다. 특히 범내골역에서 1호선을 이용하면 부산역까지 8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중앙대로, 가야대로 등이 있다.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이 들어서는 부산 진구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신흥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냉정~범일구간 5.6km의 가야선 이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냉정~범일 선로 철거가 필수였던 범천차량기지(정비장) 이전 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은 e편한세상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HOUSE)'가 부산 최초로 적용된다. C2 HOUSE는 대림산업이 오랜 기간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따른 고객 생활 패턴을 분석해 인테리어 스타일, 구조, 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차별화한 e편한세상만의 새로운 주거 플랫폼이다.

C2 HOUSE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된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대림산업만의 특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된다. (051)991-0077

판교·강남 출퇴근... 교통 첫 대형브랜드

대우건설 |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대우건설은 경기도 여주시 첫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인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84㎡ 551가구를 오는 10월 공급한다. 타입별로는 ▲전용 84㎡A 314가구 ▲전용 84㎡B 157가구 ▲전용 84㎡C 80가구다.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는 단지 바로 맞은 편에 세종초·중이 위치해 있다. 또 경강선 여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판교 및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차량으로는 서여주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영동고속도로(여주 IC)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경강선(판교~여주선)을 이용하면 여주에서 판교까지 40분대로 오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수서~경기 광주간 복선전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단지 가까이 황학산과 황학산 수목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다수의 골프장과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남한강, 강변유원지, 썬밸리 워터파크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사업지 인근으로 여주역세권 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해 교통1·2지구, 월송지구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는 2003년 공급 이후 16년 만에 교통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이자 교통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에 4-베이(bay) 관상형 위주 설계로 세대 내에는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현관창고, 복도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수납공간과 푸르지오만의 특화 설계가 반영된 히든키친 및 클린존 등이 설치된다.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이 마련된다. (1600-0878)

금정역 GTX-C 추진... 광역 교통망 우수

두산건설 |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두산건설은 이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1번길 11 일원에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39~84㎡, 558가구 가운데 2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 전용면적별로는 ▲39㎡ 9가구 ▲46㎡ 19가구 ▲59㎡ 67가구 ▲74㎡ 123가구 ▲84㎡ 32가구 등이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과 안양역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약 1.3km 거리에 위치한 석수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로 접근이 편리하다. 또 경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 주변으로 석수전화국사거리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이 오는 2025년 신설된다. 뿐만 아니라 관악역과 1정거장 거리에 있는 석수역에도 오는 2024년 완공을 앞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들어선다. 여기에 도보 약 10분 거리의 안양 예술공원사거리에는 수원~구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가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근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의 경우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수원~금정~삼성~양주)이 추진 중이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주변으로 안양예술공원은 공원 내부에 국내외 유명작가의 예술 작품을 비롯해 야외무대, 전시관, 산책로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이 조성돼 있다.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효성 안양공장, 안양IT단지, 평촌스마트스퀘어 등을 비롯해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 등도 접근이 수월하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에 들어선다.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청약특장 보유 시 1순위 청약조건이 충족된다. (1577-9322)

단지 앞 율랑천... 학교 밀집한 '교육도시'

금호산업 | 청주 금호어울림 센트로

금호산업은 충북 청주시 율랑동 신라타운을 재건축하는 '율랑 금호어울림 센트로' 59~84㎡, 748가구 가운데 45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옛 신라타운 부지는 율랑동 도심 입지로 하나마타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홈플러스, CGV, 롯데시네마, 청주성모병원,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등과 청원구청, 충청북도청, 청주시청 제2청사 등 주요 관공서도 가깝다.

단지 옆에 충북상업정보고와 청주중앙여자중이 위치해 있고, 도보 5분거리에는 덕성초가 위치해 있다. 새터초, 율랑중, 청주여고, 청주대성고, 청주대, 충북대, 서원대, 청주교육대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단지에서 반경 1km 이내에 밀집돼 있다. 이밖에 충북학생수영장이 도보권에 있으며 충청북도중앙도서관도 가깝다.

단지 앞에 율랑천이 흐르고, 청주 벚꽃길로 유명한 무심천과 수변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과 운천공원, 내덕생활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제1순환로와 공항로가 인접해 있다. 또한 제2·3순환로와 서청주IC, 오창IC 등이 10분대에 접근 가능하며 청주일



반산단,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문화산단, 청주밀레니엄타운 등 주요 업무시설도 가깝다.

구도심인 율랑동에서 가장 높은 29층 최고층으로 조성돼 조망권이 우수하다. 공간활용도가 우수한 4-베이(Bay·일부타입)와 수납공간을 특화한 3-베이(bay·일부타입) 등 금호어울림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지상에 차가 없는 에코특화 아파트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이국적인 조형물과 다양한 식재들로 꾸민 중앙광장과 입주민이 채소나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가족텃밭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입주민들의 취미와 건강을 고려한 실내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맘스카페, 작은도서관 등이 적용된다. (043)217-5300



채용연계 인턴을 공략하라... 실무경험·정규직전환 기회

대기업 인턴 공채 기준생 관심
현대차, 남부발전 이달 말까지

대기업들의 하반기 신입 공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무 경험을 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채용연계형 인턴 공채에 대한 취준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사람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한국남부발전, 아시아나항공, 현대백화점그룹 한섬,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에서 이달 말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현대자동차는 22일까지 '2019 H-Experience 인턴사원' 채용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직무는 수출전략관리, 해외법인 관리 및 지원, 상품운영, 제휴 전략, 사외매체홍보, 제네시스 마케팅, 제네시스 상품기획, 신사업기획·개발, 사업기획 등 다양하다.

학사나 석사 학위 취득자나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 TOEIC 스피킹 등 영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최근 열린 2019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어회화 성적 보유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기획 부분의 경우 비즈니스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 부문별 우대 사항이 상이하므로 채용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전형 절차는 지원서접수 이후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턴연구,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남부발전은 25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채용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대졸은 일반(사무, ICT,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분야), 장애(사무, 기계 분야), 보훈(사무, 화학 분야) 부문에서, 고졸의 경우 기계, 전기 분야에서 채용한다.

학력 및 전공,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등은 우대한다. 서류심사, 필기전형, 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예정자를 결정하고,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후 최종 인턴사원 합격자를 가린다. 채용형 인턴사원은 약 5개월 인턴 근무 후 종합성적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까지 2019년 하반기 항공정비직 인턴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기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국내 정기 TOEIC 성적 소지자면 학력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항공, 기계, 전기, 산업 공학 및 관련 전공자는 우대한다. 서류전형, 실무면접, 인적성검사, 임원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인턴사원으로 1년 근무 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 한섬은 30일까지

2019년 하반기 패션전문직 대졸인턴 공개채용에 나섰다. 모집분야는 우븐디자이너, 니트디자이너, 상품기획, 소재기획, 칼라기획, 아트기획, VMD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 기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의류, 의상, 패션 등 관련 전공자(복수 및 부전공자 포함)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 3차면접, 인턴실습 순이며, 인턴평가 우수자는 2019년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채용한다.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은 23일까지 4급 신입사원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손해사정(장기보험)부문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면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서류전형, 1차면접, 인턴실습 및 인적성 검사, 최종 임원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할 합격자를 선발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상명대, 문화촌 재조명하는 전시회 열어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프로젝트



홍제동 아지트 입구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는 문화예술대학 조형예술학과 학생들이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동 아지트'에서 공공 미술 전시회 '홍홍홍'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 18명이 참여한 '비트박스 문화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지난 3월 서울시가 공모한 2019년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돼 서울 곳곳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상명대 서쪽에 위치한 홍제동과 흥은동 일대를 지칭하는 '문화촌'을 재조명했다. 또 주민 각자의 생활방식과 문화 등으로 벌어진 틈을 프로젝트를 통해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돼 발전하는 공동체 문화를 실험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사진(문화촌 출장사진사) ▲다큐멘터리 필름(사이트길) ▲매거진(비트+0) ▲퍼포먼스(겹

질 깨는 라디오) ▲전시기획(홍홍홍) 4개 팀으로 활동하면서 4개월 동안 문화촌을 누비며 주민들의 삶을 기록했다. 전시회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문화촌의 다양한 모습을 전시와 퍼포먼스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한다. 지난 8월 진행된 '겹질 깨는 라디오' 주제의 퍼포먼스는 홍제동 유진상과 과일상회 내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이는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 기록 영상과 '문화촌 출장 사진사' 활동을 통해 얻은 사진 작품, 홍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엮는 다큐멘터리 필름, 이 활동들을 엮은 매거진 등이 전시된다. /한용수 기자

웅진씽크빅 '놀이의 발견'... 라한호텔과 MOU

가족 단위 투숙객 공략
가을여행 키즈패키지 선포



웅진씽크빅 어린이 놀이 플랫폼 '놀이의 발견'이 지난 17일 상암동 웅진씽크빅 키즈플랫폼사업단에서 MOU를 체결했다. /웅진씽크빅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이 라한호텔 그룹(이하 라한호텔)과 함께 휴양과 키즈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놀이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웅진씽크빅은 어린이 놀이 플랫폼 '놀이의 발견'이 지난 17일 상암동 웅진씽크빅 키즈플랫폼사업단에서 이영훈 키즈플랫폼사업단장과 라한호텔 백상석 영업마케팅 전무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라한호텔은 경주, 목포, 울산 등 전국 6개 도시 내 지역별 랜드마크 호텔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놀이의 발견은 이번 협약을 통해 키즈카페, 테마파크, 지역 공방 프로그램

등 전국 3500여 개 제휴사의 놀이 콘텐츠 뿐만 아니라, 라한호텔의 객실 숙박 서비스와 결합한 키즈 체험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라한호텔 백상석 전무는 "놀이의 발견과 진행한 휴양과 키즈 체험 프로그램 연계 여름 프로모션이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았다"라며 "객실 숙박 서비스와 다양한 가족 체험 콘텐츠를 연계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씽크빅 키즈플랫폼사업단 이영훈 단장은 "놀이의 발견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제휴를 통해 놀이 콘텐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편하게 쉬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단국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

오늘 난파음악관 콘서트홀

단국대 성악과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19~20일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공연 시간은 19일 오후 7시, 20일 오후 3시, 7시다. 흥성은 학장을 중심으로 백유진 학과장(성악과), 이영화 교수, 최이순 연출 감독을 비롯해 성악·기악과 교수진이 힘을 모았다.

피가로의 결혼은 18세기 유럽 사회를 풍자한 보마르세의 희곡을 바탕으로 폰테가 대본을 쓰고 모차르트가 작곡했

다. 바람기 많은 백작과 그의 사랑을 되찾으려는 백작부인, 영리한 하인 피가로와 재치있는 하녀 수잔나가 펼치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주옥같은 작품이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불후의 명작이다.

백유진 학과장은 "재학생 모두에게 솔로 아리아 및 앙상블의 멋진 무대를 제공해주고자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며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부르지만, 대사는 한국어로 불러 쉽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순천향대, 축제 뺨치는 동아리박람회 눈길

순천향대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교내 SRC 향설생활관, 피닉스 광장, 학생회관 일대에서 봉사분야, 교양학술분야 등 45개 동아리, 20개 학과 동아리 참가한 가운데 '2019 동아리 박람회' 일명 '동플리(동아리플레이리스트)'를 성황리에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는 ▲공연예술분야인 락밴드 '크레인', 풍물공연 '울림', 버스킹진행 '큐브'가 ▲체육분야로 태권도 '화랑', 테니스 '파랑새', 주짓수 'HALF'가 ▲종교분야로는 기독교 동아리 CC C 등 ▲봉사분야로는 로타랙트, 해바라기, 굿네이버스 ▲전시창작분야로는 순수미술 '미향', 웹툰그리기 'TOONLAB' ▲교양학술분야에서는 공모전 준비법 '투데이', 화장품 만들기 '팔렛트' 등 총 45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또, 에너지환경공학과(EOS), 경영학과(스카스), 생명시스템학과(표본반), 빅데이터공학과(Big Future), 임상병리학과(오손도손), 중국학과(다락), 창업동아리(울봄) 등 20개 이상의 학과동아리가 박람회장을 찾은 학생들을 맞이했다. 앞서, 지난 16일 향설생활관 일대에서 선보인 박람회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체득한 학술·문화·예술 등의 창작물을 전시하고 공연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단순히 동아리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일간의 동아리 모습을 학내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대 학문화를 공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한편, 대학에서는 오는 10월 말에 동아리 활동을 결산하고 1년을 마무리하는 'SRCA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DMZ국제영화제' 개막작 중양대 참여 영화 선정

중양대는 접경인문학연구단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가 20일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제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는 박소현 감독의 작품으로 냉전 마지막 현장의 20대 청년들이 목포에서 출발해 서울역,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베를린까지의 유라시아 대장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접경인문학 연구단 관계자는 "영화의 서사가 한반도의 탈분단 시대를 위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생기 있게 담긴 점, 자발적 화해와 공존을 위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MASERATI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co.kr



캠코, 저소득가정 '희망 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제적 여건으로 가족여행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가정 등 총 50가족, 150명을 대상으로 '희망 Replay(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캠코는 희망 리플레이(Replay) 제주도 가족여행 첫날인 17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희망 Replay 제주도 가족여행 기념식'을 개최한 후 제주도 여행에 참가한 가족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효성, 고려대에 산학협력강좌 개설 효성은 올해 2학기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부와 석·박사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강좌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효성은 2011년부터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 우수대학에서 미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강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 철학에 따라 시행 중이다. R&D 투자 확대와 인재 확보 등이다. /효성



대흥기획, 제36회 DCA 대학생광고대상 시상식 개최 대흥기획은 지난 17일 예비광고인 아이디어 공모전 제36회 'DCA 대학생광고대상(Daehong Creative Award)'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에는 ▲롯데제과 빼빼로 '함께 이어가는 길, 빼빼로드' (한양대학교 한민회·장소영, 상명대학교 전소연)와 ▲롯데주류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약속' (경희대학교 육수민)이 뽑혔다. /대흥기획



롯데리아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야구 리그' 성료 롯데리아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야구리그' 대회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결선 리그 결과 송중초등학교, 광희중학교가 우승했고, 우천으로 연기돼 17일 서울성남고등학교에서 열린 고등부 결승에서는 경인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롯데GRS

제주삼다수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사회적 책임 경영활동 강화

제주삼다수가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적 책임 경영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시민 그룹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UNGC 가입

으로 앞으로 인권과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 및 기업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UNGC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등 공사의 다양한 활동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게 된다. 도민의 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일찌감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쌓아가고 있다. /박인용 기자



윤 위 중 의 잠시 심포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몰아붙인다.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정을 봐주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간지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양보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려나 관용이 없어졌다. 내가 아니면 남이라는 생각,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주장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런 현상이 특히 더 심해졌다.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도 가차 없이 달려든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다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었다. 상대방의 흠집을 찾기 위해 체면이고 뭐고 없다. '유튜브 언론인'이라는 생전 처음 듣는 희한한 변명도 어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있어야 할 국회를 비워두고 길거리에서 삭발을 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정치인들도 늘고 있다.

기업들도 언제부터가 '동업자 정신'

양보 없는 사회

이 사라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기술집털 소송전이 '적전분열'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도무지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한국수출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나올지 모른 상황인 데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턱 밑까지 올라왔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두 기업 간의 소송전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TV 시장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8K를 두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라는 비판과, 상대방 제품이 오히려 흠결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기업만이 아니다. 이들은 전 세계 TV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의 소니, 도시바, 히다치 등을 꺾고 세계 1위의 반열에 올라선 글로벌 기업들이다. 이들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면 그 상대는 전 세계 소비자들일 것이다. 단지 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한 단어였지만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의 주장이나 주관이 그만큼 뚜렷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들 똑똑하고 잘난 건 좋지만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 그저 아는 게 많다는 것과, 그 많은 지식을 슬기롭게 사용한다는 건 상대방의 배려,

용서, 포용 등 도덕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정치나 기업이나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른'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고만고만한 두 싸움에 누군가 나서서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정치 원로, 재계 원로가 지금 이 시대에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정계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있을까. 대권 주자가 아니더라도, 여와야의 싸움을 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덕망 있는 인사가 과연 있나.

재계도 마찬가지다. 과거 이견회 회장, 구본무 회장 등 정부나 정치권에 쓴 소리를 하면서 후배 기업인들의 존경을 받는 재계 원로가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 게다가 정치권에서 대기업을 마치 국가에 해를 끼치는 나쁜 집단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재계 원로들도 요즘은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어른께 어른 대접을 하지 않고, 본인이 잘났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절대 상대방에 대해 용서나 양보를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보 없는 사회, 어른 없는 사회가 됐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말련 랜드마크와 노하우 공유 맞손

페트로사인스와 업무협약 체결

롯데월드는 지난 17일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와 양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 및 전망대 운영 노하우 공유 ▲상호 마케팅 활동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높이 452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으로 360m 높이의 전망대와 170m 높이의 스카이라이프 등의 관람시설을 갖



지난 17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페도라 줄키플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대표(왼쪽부터), 다록 하심 와히르 KLCC힐딩스 그룹 CEO,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월드

추고 있다.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인사

◆**방위사업청** ◇본부장 전보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강은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손현찬 ◇국·부장 전보 △방위사업정책국장 정재준 △국방기술보호국장 김상모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서형진 △화학사업부장 임영일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이정용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원종대 △유도무기사업부장 송창준 △무인사업부장 김중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과장급 전보 △방위사업분석과장 강정훈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원호준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 이찬규 △기반전력사업규격목록팀장 황양운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기팀장 함수영 △기동계약팀장 이진호 △전투차량사업팀장 박정은 △전투체계팀장 한상

부음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처장급 전보 △해외사업본부장 손병두 △영남본부장 이인희 △충청본부장 성영석 △비서실장 우현구 △설계실장 이종윤 △품질관리처장 강홍목 △인사복지처장 이현철 △전철처장 양인동 △궤도처장 이용희 △기술교육연구원 기술연구처장 장형식 △영남본부 재산지원처장 임연민 △충청본부 총청권사업단장 송혜춘

◆**동양생명** ◇ 전무 승진 △피터진(CF O·경영전략부문장)

▲ 강운순씨 별세, 정재호(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정채성·정현철(연세춘치과 원장)씨 모친상, 최지연(농협투자증권 국제영업부 근무)·신나임씨 시모상, 조성은(삼성전자 부장)씨 장모상 = 18일 오전 6시1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우성공원 묘원. 02-3410-6901

▲ 나창주씨 별세, 나정선·나인집(전 두산중공업 과장)·나정미·나명재(여수강남요양병원 원장)씨 부친상, 박홍기(서울신문 편집이사)씨 장인상 = 17일 오후 11시, 광주광역시 광주수원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20일 오전. 062-959-4444

혼수·이사 큰손 잡아라... 유통가 대목 겨냥 '세일大戰'

신세계백 지점별 40% 할인 특가
롯데하이마트 최대36개월 무이자
전자랜드 '파워웨딩 박람회' 개최

본격적인 이사·혼수 시즌을 앞두고, 예비 신혼부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에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 채널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실속있는 혼수 구매를 위해 다양한 웨딩 행사를 진행한다.

백화점업계에서 따르면 매년 9월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웨딩시즌을 앞두고 혼수를 구매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다. 특히 결혼 시기가 늦어지며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춘 30대 예비 신랑신부들이 직접 혼수를 고르고 구매하기 때문에 30대의 매출 비중이 급증한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이 최근 3년간 월별로 연령대별 매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결혼 적령기인 30대 9월 매출 비중이 연평균보다 1~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전, 가구, 명품 등 혼수·예물로 대표되는 상품군의 경우 30대 매출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롯데하이마트 36개월 무이자 대전

/롯데하이마트

트 이상 높은 40%를 웃돌기도 했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경기점 등 각 점포에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 행사를 대대적으로 선보인다. 강남점에서는 23일부터 29일까지 쉐리, 다우닝, GE 등이 참여하는 '혼수리빙 대전'을 연다. 쉐리침대에서는 매트리스를 최대 40%까지 할인하고 GE에서는 혼수 필수품목인 냉장고를 10~20% 할인해 선보인다.

의정부점에서도 혼수 가구 행사를 진

행해 20일부터 26일까지 에이스침대, 시몬스, 템퍼 등이 참여하는 '리빙&웨딩 페어'를 펼친다.

경기점에서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IWC, 몽블랑, 오메가, 태그호이어 등 8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럭셔리 워치 페어'를 펼치고 인기상품 및 기존에 만나볼 수 없었던 미입고 상품을 다수 선보인다.

전자랜드와 롯데하이마트도 이사·혼수 가전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스

마트 컨슈머를 공략한다.

전자랜드는 오는 21,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자랜드 파워웨딩 박람회'를 연다. 전자랜드를 비롯해 스튜디오,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혼수, 예물, 예복 등을 전문으로 하는 약 160개 업체가 참여한다.

▲예복부문에서 해리스테일러, 모베터쉬크 ▲예물부문에서 베루체, 메이앤리, 백작바이피렌체 ▲한복부문에서 황후, 반가의 한복, 박경숙 한복 ▲생활용품부문에서 레노마홈 ▲여행부문에서 팜투어 등 인기업체들이 참여한다. 참가업체들은 계약고객에게 수제구두, 넥타이, 혼수 예복 대여, 진주 귀걸이, 스타일링 팔찌, 써지컬 귀걸이, 양가 혼수 맞춤 한복, 자가보석함, 베게커버 및 베개솜, 여행용 캐리어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전자랜드는 방문고객 전원에게 예코백, 가족사진 촬영권, 3박 5일 여행상품권, 커피쿠폰을 증정하며, 혼수가전상담을 받은 고객 선착순 200명에게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하고 포토머그컵을 제작해준다. 이밖에도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해 합리적인 가격에 혼수용 가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30일까지 '이사·혼수 최대 36개월 무이자대전'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정해진 금액 이상을 제휴 카드로 구매하면 최대 3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또 TV,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인기 가전제품을 연관된 다른 품목과 세트 구성해, 구매 고객에게 상품권,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과 세트 구성된 사우นด์바,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을 함께 구매하면 엘포인트를 최대 59만 포인트까지 준다.

이번 행사는 롯데하이마트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판촉행사 '대국민 가계절약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사·혼수 가구의 수요가 많은 9~10월에는 '이사·혼수 최고 36개월 무이자대전'과 '중고가전 교체 보상판매 대전'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에는 '블랙페스타', 12월에는 올 한 해 동안 롯데하이마트에서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들을 위주로 선보이는 '히트상품 연말정산 대전'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럭셔리 엄지족 공략'... 롯데백 온라인에 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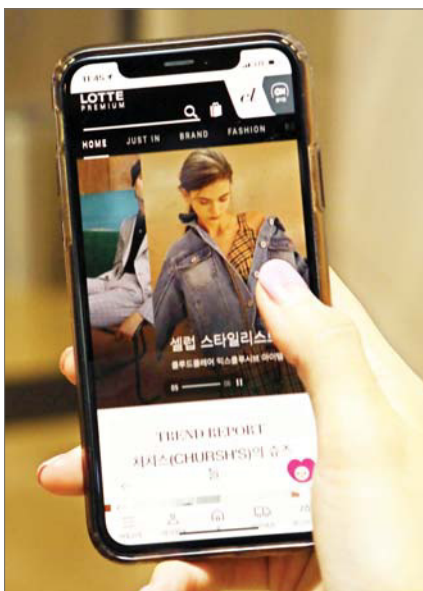
'롯데 프리미엄몰' 오픈
해외 명품 브랜드 정식 입점
시착 예약 서비스 등 차별화

롯데가 최저가, 특가할인 등으로 포화된 온라인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다.

롯데백화점은 19일 프리미엄 패션몰인 '롯데 프리미엄몰(Lotte Premium Mall)'을 오픈한다. 해외 브랜드, 컨템포러리 의류 등 고가 상품군이 입점 될 롯데 프리미엄 패션몰은 백화점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몰에서 백화점 출고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 측은 "국내에 정식 입점된 해외 브랜드 고가 의류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몰이 전무한 상태에서 백화점이 가진 신뢰성과 브랜드 운영 노하우를 이용한다면 다른 온라인몰과의 차별화된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프리미엄몰 오픈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프리미엄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온라인몰에서만은 상품에 대한 신뢰성, 배송, 사후 서비스 등의 문제가 있어 프리미엄보다는 저가 상품



프리미엄몰.

/롯데백화점

위주로 운영돼 가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로 인해, 해외 패션 및 프리미엄 등에 대한 구매 수요는 일반적으로 백화점 등 오프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 프리미엄몰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프리미엄 상품을 대폭 강화해 기존 온라인 패션몰과는 차별성을 뒀다. 우선, 해외 유명 브랜드 및 국내/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입점돼 이월이나 병행상품이 아닌 백화점과 동일한 정상 상품(In-Season)을 판매한다.

입점 브랜드는 '보테가베네타/MSG M/처치스' 등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로 국내 온라인몰 최초로 론칭한다. 여기에 '털버리/에트로/비비안웨스트우드/모스키노' 등의 인기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입점돼 총 234개 브랜드, 2만4000개 상품들을 선보이며, 올해 안에 360여 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롯데 프리미엄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 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착해 보고 싶은 고객들을 위한 '피팅 예약' 서비스도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프리미엄몰 내 상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고객이 방문 일과 시간을 정해 온라인 신청 후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더불어, 롯데 프리미엄몰의 상위 등급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기획전', '프리 오더 서비스' 등을 진행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백화점 최상위 고객인 MVG만이 경험하던 특별한 혜택을 선보여 기존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풀무원 "친환경전기차로 녹즙 신선 배송"

풀무원이 친환경 전기차 D2로 녹즙 배송에 나선다.

풀무원녹즙은 친환경 전기차 D2를 도입해 신선음료 녹즙 배송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풀무원녹즙은 녹즙의 신선하고 빠른 배송과 오토바이 사용이 많은 모닝스텝(녹즙 배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배송차량 도입을 검토해왔다. 여기에 환경을 고려해 2017년부터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수차례 시승과 적재 물량 테스트를 통해 지난 6월 쉐미스스코의 초소형 전기차 D2를 녹즙 배송 수단으로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녹즙 배달 차량 D2에는 다른 전기차

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친환경 리튬폴리머 배터리(17.28kWh)가 탑재돼 있다. 1회 충전 시 최대 1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는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녹즙 제품의 특성상 신속한 배송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됐다.

전장 2820mm, 전폭 1520mm의 작은 차체로 좁은 골목길 등에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작은 차체는 모닝스텝의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동반경이 넓은 모닝스텝의 업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풀무원녹즙 D2 차량은 풀무원녹즙 논현오피스, 역삼오피스, 김포중부흥가맹점에서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박인용 기자

유통 단신

오비맥주
OB라거 '뉴트로' 한정판

오비맥주는 1952년 탄생한 대표 맥주 브랜드 'OB'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OB라거' 뉴트로 제품(사진)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뉴트로(New+Retro) 트렌드'를 반영해 OB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중년 소비자층에게는 향수를, 20대 밀레니얼세대에게는 새로운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품을 내놓게 됐다.



/박인용 기자

SPC 파스쿠찌
시즌 한정 '블렌딩 티' 3종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스쿠찌가 시즌 한정 제품으로 '블렌딩 티 3종'(사진)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동 말차 펄 크림티'는 하동 말차를 사용한 밀크티에 타피오카 펄과 솔티 플랫크림을 더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패션 망고 티 펀치'는 망고와 석류 등 다양한 과일의 풍미가 어우러진 음료다. '머스캣 민트 티 토닉'은 탄산수에 청포도와 민트를 넣어 청량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박인용 기자

초등생, 아침에 오리온 '오!그레놀라' 먹는다

농식품부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선정

오리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아침간편식 지원 사업'에 '마켓오 네이처'의 '오!그레놀라'와 '오!그레놀라바'가 간편대용식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오!그레놀라와 오!그레놀라바는 국

산쌀, 통귀리, 호밀, 통밀 등 국내 생산 고함량 그레놀라를 사용해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풍부한 영양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지원 사업 선정에서 뛰어난 맛과 풍부한 영양, 생산·제조·유통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 등을 인정받아 아침 간편식으로 선정됐다.

아침간편식 메뉴는 '오!그레놀라 사과&크랜베리' 60g과 요거트, '오!그레놀라바 무화과베리'와 주스로 구성된 2종으로, 각 학교별로 총 2~3회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아침 밥 먹기 습관 형성과 학업 집중도 향상 등을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전국 8개 초등학교 총 2230명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한미약품 ‘아모잘탄’ SCI급 학술지 게재

고혈압치료 복합신약제

한미약품은 세계고혈압학회와 유럽 고혈압 학회 공식 저널이자 SCI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Hypertension’에 고혈압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의 임상 4상 하위분석 연구결과가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아모잘탄의 국제학술지 게재는 이번이 11번째로, 한미약품은 현재까지 SCI급 6개, SCIE급 3개 등 유수의 국제 학술지에 아모잘탄의 주요 연구 결과들을 등재했다.

아모잘탄은 고혈압 치료 성분인 CCB와 또다른 고혈압 치료 성분 ARB를 결합한 복합신약으로, 작년 국내 전문의약품 처방 매출 10위권 내에 진입한 유일한 국산 의약품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아모잘탄과 ARB/Diuretics(이뇨제) 복합제간 24시간 실시간 중심혈압, 활동혈압, 맥파전달속도 등 다양한 혈액학적 지표들을 세계 최초로 비교 평가한 연구다. 연구진은 이번 임상에 참여한 231명의 환자 중 아모잘탄 투여 환자 70명과 ARB/Diuretics(이뇨제) 복합제 투여 환자 72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여 20주 후 경동맥-대퇴동맥의 맥파전달속도(이하맥파전달속도) 변화량이 아모잘탄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세경 기자

이대목동병원-양천구보건소 ‘염분조절’ 쿠킹 클래스 개최

이대목동병원은 양천구 보건소와 함께 오는 25일 신월보건지소 4층 영양교실에서 ‘나소으로 만드는 맞춤 건강식-염분 조절 식’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혈액투석으로 식사요법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양천구 보건소와 이대목동병원이 ‘혈액투석환자 영양 식습관 개선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수빈 임상영양사의 영양 교육과 이형민 요리 연구가가 조리 실습을 진행하며, 이어 류동열 이대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와 대화 및 식사 시간으로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양천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 액상형 진통제 ‘타미노펜’

GC녹십자는 액상형 진통제 ‘타미노펜(사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타미노펜’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인 해열진통제로, 두통과 발열, 통증,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성분에 대해 알러지 등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복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 성분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 평가한 안전성 등급에서 임산부와 수유부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B등급에 포함되었다. 이 제품은 연질 캡슐형으로 만들어져 정제 제품 대비 체내 흡수율이 높아 치료효과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제형의 단점인 속쓰림을 비롯한 위장 관련 부작용도 적다. /이세경 기자

놀이터부터 키즈 메뉴·공연까지

외식업계, 온가족 만족하는 특화매장 ‘바람’

최근 외식업계에서 가족 외식하기 좋은 매장을 오픈해 가족 단위 고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외식은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와 메뉴를 골라야 하고 특히 아이들의 있는 경우 외식 장소 선택이 쉽지 않다. 이에 업계에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넓은 공간을 마련해 가족 외식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빅스는 지난해 6월 CJ제일제당센터점을 시작으로 명동, 합정역, 계산 등에서 상권 특성과 고객 니즈를 분석해 매장별 특화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어려운 외식 환경 속에서도 계산점은 지난해 대비 고객수가 30% 가량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정역점은 빅스 평균 고객 대비 45%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빅스는 특화 매장을 지방 거점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전 둔산점과 수원 아주대점을 상권 특성과 고객 니즈에 따라 각각 리뉴얼 오픈했다.

이랜드파크의 한식 샐러드바 자연별곡도 가족 외식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별곡일산점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족외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가족 단위 고객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맞춰 키즈 놀이터 ‘코코몽 놀이방’을 매장 내에 설치하



디딤의 서초 다이닝 포레스트.

서초 다이닝 포레스트
유아용 생수·무독성 식기 구비
빅스 합정역점 고객수 45% 경증
자연별곡 키즈존·토들러존 마련

는 한편,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키즈메뉴가 제공되는 ‘코코몽 요리 나라’ 코너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기존 매장과는 다른 모던 콘셉트의 화사한 분위기로 새롭게 단장한 내부 인테리어다. 전체적으로 밝은 조명과 깔끔한 매장 분위기를 연출해 가족외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장 내 코코몽 키즈놀이터를 설치 운영한다. 외식을 하면서도 아이의 안전이 우선



CJ푸드빌의 빅스 계산점.

/각사

인 부모들을 위해 연령별 키즈존과 토들러존을 함께 구성했고 놀이터 내에는 볼풀장, 미끄럼틀, 편백존, 오락기 등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교촌치킨은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옆에 120평 규모의 특화매장 ‘교촌치킨 청라호수공원점’을 오픈했다.

청라호수공원점은 전국 교촌치킨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다. 매장 내부에는 대형 멀티비전과 40개의 생맥주 케그를 활용한 오브제 인테리어로 스포츠와 치맥을 즐기는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과일주스와 브런치 슝인슝(s hop in shop) 매장인 디디밴드 공연이 가능한 장소를 마련해 외식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존 교촌치킨 매장보다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외식기업 디딤이 운영하는 식당가 ‘서초 다이닝 포레스트’에는 한식, 해산물, 중식, 분식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 가족 외식하기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다.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마련돼 있어 아이와 함께 온 가족 고객들이 방문하기 좋다.

매장 내에는 유아 및 어린이 고객들이 편안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급 하이체어를 구비하고 있으며, 무독성 재질의 유아용 식기, 실리콘 턱받이, 아기 전용 생수를 제공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을 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계에서는 아이 어른 모두가 와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가족외식이 많은 주말 날들이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8일 인천 송도 셀트리온 본사에서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 산업은행과 손잡고 2000억 규모 바이오펀드 조성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MOU

셀트리온그룹은 KDB산업은행과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인천 송도 셀트리온 본사에서 서명식을 갖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기우성 부회장, 셀트리온헬스케어 김형기 부회장,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오진교 부부장, 서성호 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실무진 40여 명이 참석했다.

셀트리온과 산업은행은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사는 향후 바

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바이오헬스 육성 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 이달부터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성장 노하우가 산업은행의 든든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접목된다면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하우 전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씨제이헬스케어 신약 ‘케이캡’ 印尼 진출

동남아 제약사 칼베에 5년간 공급

씨제이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동남아시아 1위 제약사 ‘칼베(KALBE)’와 손 잡고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 수출 계약으로 우리나라 30호 신약 케이캡은 국내 및 중국, 베트남, 중남미 17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총 21개국에 진출하게 됐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최근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칼베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케이캡(성분명 데고프라잔)을 인도네시아에 독점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씨제이헬스케어는 출시 후 5년 간 칼베 사에 케이캡 정 완

제품을 공급하고, 칼베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케이캡의 독점 판매권을 갖는다. 케이캡이 진출할 인도네시아는 약 2억7000만 명의 인구가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다.

새로운 작용기전(P-CAB;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케이캡은 우리나라 30호 신약으로 허가 받고 올해 3월 국내에 출시됐다.

출시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까지 누적 102억 원을 기록한 케이캡은 최근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외에 위궤양을 적응증으로 추가하며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세경 기자

중근당 유럽당뇨병학회서 ‘듀비에’ 안전성 입증

대사증후군 개선 연구결과 발표

중근당은 17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2019 유럽 당뇨병학회(EASD)에서 당뇨병 신약 ‘듀비에’의 대사증후군 개선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듀비에의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

내 27개 기관에서 247명의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임상결과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신곤 교수는 “최근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듀비에의 연구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듀비에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현대자동차, 고령자 맞춤형 교통 안전교육 나선다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1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신텍스에서 ‘제 4회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을 개최하고, 다양한 시니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은 현대차그룹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의 우수 수료자들이 참가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퀴즈대회로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예선을 거쳐 총 400명이 참가했다.

대회 주제는 ‘시니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으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교통사고 예방법 ▲실생활 교통안전 ▲교



18일 경기도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의 ‘제4회 시니어 교통안전 골든벨’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안전 표지판의 의미 등 다양한 퀴즈 풀이를 통해 최종 3인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2016년부터 도로교통

공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실패해도 ‘진짜’ 괜찮아



기자 수첩

배한님 (산업부)

“성공은 실패의 시체탑 위에 올려진 예쁜 조약돌이다. 성공과 실패가 이분법적으로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 성공의 원재료는 실패다.”

지난 8월, 전남 여수에서 열린 벤처섬머포럼에서 박병준 콜버스랩 대표의 강연을 들었다. 박 대표는 ‘스타트업은 연역법이 아닌 귀납법’이라 설명하며 실패가 쌓여야만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냥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 좀 더 가슴에 남았다. 박 대표는 “실패가 우리 사회의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말처럼 실패는 성공의 토대요, 사회적 자산이다.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은 순전히 운이다. 실패는 습관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스타트업계와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3일간 ‘실패박람회’를 연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실패박람회는 다양한 실패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장려해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캠페인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런 실패박람회가 실패했을 때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재기 지원 프로그램 보다 전시나 강연, 콘서트 등 문화 행사가 주를 이룬다. 말뿐인 응원이나 실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응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 10일 열린 ‘재도전 기업인 간담회’에 참가한 박진영 엔택캐드 대표는 “재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재도전 성공패키지가 유일하다”고 토로했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재도전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해서 배정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창업 도전자들에게 진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지원이 늘어 국민들이 실패해도 ‘진짜’ 괜찮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ricbae1683@metro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힐링캠프로 임직원 ‘토닥토닥’

8개 지역서 임직원 재충전 프로그램

삼성전자서비스가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경주, 제천, 거제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임직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힐링캠프는 서비스 업종 특성상 감정노동에 노출되기 쉽고 특히 여름철 늘어난 업무량으로 심신의 스트레스가 컸던 임직원들의 재충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힐링캠프에는 수리 엔지니어, 상담사 등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260여 명이 참여한다.

개인 심리 분석, 요가와 명상을 통한 치유, 힐링 산책 등이 진행되며 각 지역별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역사 문화 탐방 등 이색 야외 행사도 실시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1월 협력업체 직원 7400여명의 직접고용으로 전체 구성원이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이 요가 강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폭 증가하면서 임직원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내상담실을 확대하고 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오늘의 운세

9월 19일 (음 8월 21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과거 그때가 좋았다. 48년생 계획 없이 일을 처리하다가 낭패. 60년생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72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는 고통. 84년생 새로운 것만 찾다가 큰코다칩니다.

소 37년생 모처럼 반가운 손님이 온다. 49년생 욕심이 지나쳐 남들을 불편하게 한다. 61년생 이해관계로 가족과 다툼이 예상. 73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라. 8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자.

호랑이 38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온다. 50년생 현상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 62년생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 74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86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

토끼 39년생 자손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 51년생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라. 63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도 올 것이다. 75년생 신심으로 예의를 지키면 복이 온다. 87년생 타인의 말에 공연히 휘둘리지 말고 교과서적으로 행동.

뱀 40년생 신경 쓸 일이 많으니 위장질환을 주의. 52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피하는 게 좋다. 64년생 내가 믿어야 상대도 설득. 76년생 웃지 않고 보면 날은 의미 없는 날. 88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흐르는 대로 노력.

말 41년생 성실함이 강력한 힘이다. 53년생 철학같이 깡깡하니 곧 새벽이 온다. 65년생 능력 없는 일은 아예 손대지 마라. 77년생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89년생 백만 송이 장미가 바닥에 깔렸으니 행복할 날.

말 42년생 표현을 해야 남들도 알아준다. 54년생 정확한 거절이 상대에게도 도움. 66년생 착한 친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 78년생 자식으로 인해 마음이 뿌듯하고 날아갈 듯. 90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양 43년생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이 이루어진다. 55년생 삶이 지루하고 흥미가 없다. 67년생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기 전에 겨울을 준비. 79년생 앞에 나서게 되니 타인의 질투를 받는다. 91년생 골치 아팠던 일이 주변 도움으로 해결.

원숭이 44년생 위기를 겪으며 확실한 내편을 안다. 56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가 일을 그르치니 주의. 6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흔들리는 것은 당연. 80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92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하다.

닭 45년생 명상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자. 57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면 해결될 일. 69년생 조만간 능력을 인정받고 축하받는다. 81년생 대립위 헛바퀴 돌리는 것처럼 단조로운 하루. 93년생 한발 물러서도 그다지 손해는 아니다.

개 46년생 친구와 남쪽으로 길을 떠나면 행운이 있다. 58년생 망설임이 의외로 좋은 결과. 70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상대의 오해를 산다. 82년생 기대를 많이 한 일에 실망이 크다. 94년생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명만 있어도 성공.

돼지 47년생 책임진 일을 쉽게 처리. 59년생 바람이 불어와도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 71년생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 잠시 일을 늦추자. 83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잘 다스려라. 95년생 성과가 작아도 만족하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2	5		1	8		
2	9	1				7		
			6					
4			7	5	2			
9	8		1			3	4	
	1		6					
8	2		4	1			5	
	7					3	4	

	7		4			6		
			6		9			
5	6		7				8	3
		4	3	5	2	7		
			1					
		7	4		8	5		
		5				6		
	4	2					8	5
	1	6					9	4

스도쿠 정답								
1	7	8	2	5	6	4	9	3
9	5	6	4	1	7	8	2	3
2	8	3	9	6	7	1	5	4
5	9	1	7	6	8	2	4	3
7	6	4	1	2	9	5	8	6
6	2	8	5	4	1	9	7	3
3	6	9	8	7	4	5	1	2
8	4	5	8	7	1	9	6	3
4	1	6	8	9	2	7	3	5
6	9	2	3	7	5	1	4	8



김상희의四季

떠난 사랑 아쉬워마라

도덕을 배우며 사랑을 얘기하자면 혼란스럽기 까지 하다. 수많은 유행가 가사나 영화와 드라마는 온통 사랑 얘기 일색이다. 그런데도 사랑이란 끊임없이 영원한 인간의 주제이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젊은 연예인부부가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혼 얘기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그런데 여배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수순을 밟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제는 한 날 쓸쓸한 옛 사랑의 그림자만 남을 뿐 오히려 사랑은 가고 행하니 적막감만 남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인생사의 운항과 굴곡을 팔자를 떠나서는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에 나오는 생일을 통해 애정운이나 결혼운을 감명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유명 연예인들이라 더 화제에 오르겠지만 비단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일반 보통 사람들 역시 처음엔 불꽃이 가까워지고 사랑에 빠져도 헤어지는 일들이 비밀비재하고 더 나아가 철천지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던가.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본다. 도대체 사랑의 시효는 언제까지 일까 하는. 그래 나 싫다는 사람 쿨하게 보내주면 안될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꾼들이 헤어질 때는 예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만약 떠나는 사람에게 담담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때인가는 후회감이 들며 재결합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커플들마다 사연이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다르니 담백한 이별의 휴어나 있을 전화위복을 기대하기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나는 사람의 웃기는 잡는 법이 아니다. 사람의 심리가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도망치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89호

문제 제공= **보너스**

색조 화장품 잘 팔리네... 불황에 고개 든 '립스틱 효과'

애경산업 '매드틴트 리더' 5종
미샤 '데어루즈벨벳 F/W' 10종
지방시 '르 루즈' 3개 라인 출시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블랭크' 론칭
탈라블라 색조 매출 24% 증가



애경산업의 매트 틴트 리더(왼쪽)와 아모레퍼시픽의 매트 틴트 리더.

/각사

“경기 불황에는 미니스커트와 립스틱이 잘 팔린다.”

‘립스틱 효과’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불황이 몇 년째 지속되면서 색조 화장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업계는 불황 속 ‘작은 사치’ 소비 경향에 맞춰 관련 제품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H&B(헬스앤뷰티) 스토어 탈라블라에 따르면 지난해 색조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23.9% 늘었다. 올해도 색조화장품 매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1~8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색조 화장품 시장의 전체 규모도 커졌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색조화장품 시장은 전년 대

비 4.3% 성장했다. 기초화장품 시장 성장이 0.7%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국내 립 제품 시장은 지난해 기준 5944억 원으로, 2015년 5000억 원대에 진입한 후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색조 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말이 입증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립스틱이 잘 팔리는 이유는 남에게 잘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이라며 “저렴한 가격에 높은 만족감을 얻고 싶은 소비 심리 때문에 색조 화장품 등에 지갑을 여는 고객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계절이 바뀌 때는 립스틱 효과가 더욱 눈에 띄게 드러난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1~17일 탈라블라, 올리브영의 립스틱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5.2%, 35% 늘었다. 특히, 탈라블라의 경우, 전월 동기 기준으로 75%까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업계는 이 같은 트렌드에 따라 립스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색조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방시는 지난 2일 대표 제품인 립스틱 ‘르 루즈’를 3가지 라인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 르 루즈에 화려한 색감

의 ‘르 루즈 딥 벨벳’, ‘르 루즈 나이트 느와’ 등 2가지 라인을 추가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색조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30일 신규 메이크업 브랜드 ‘블랭크’를 새롭게 론칭하고, ‘[] 립틴트(이하 블랭크 립틴트)’ 9종을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26일 ‘오후더 퍼스트 제너츠퍼 립스틱’을 출시, 레드, 딥레드 등 6가지 색상을 선보였다. 오후에서 립 메이크업 제품이 출시된 것은 처음이다.

애경산업의 루나는 지난달 ‘매트 틴트 리더’를 5가지 색상으로 출시했다. 매트 립스틱의 밀착력과 틴트의 발색력을 더해 지속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에이블씨엔씨의 미샤는 ‘데어 루즈 벨벳 F/W’ 10품목을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2월에 16가지 색상으로 선보인 바 있는데, 당시 출시 일주일 만에 3만 개가 판매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는 23만 개를 넘어섰다.

네이처리퍼블릭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크리에이터 아랑과 함께 선보인 ‘키스 마이 에어리 매트 립스틱’은 판매

시작 19분 만에 당일 준비 수량이 완판됐다. 레드 등 무광 컬러 6종으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 화장품의 경우 매출 절반 정도가 립스틱에서 나온다”면서 “불황에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도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 심리가 뚜렷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르 루즈 딥 벨벳. /지방시

바코드 스캔, 결제 과정 없었다 매장 나서면 SSG페이 자동결제

신세계아이앤씨, 미래형 매장 첫 선
30일 김포 장기동 매장 정식 오픈



자동결제 셀프매장.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가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클라우드 기반 POS 등 다양한 리테일테크를 집약한 미래형 유통 매장을 선보인다.

신세계아이앤씨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오픈 예정인 신규 데이터센터에 다양한 IT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셀프(Self) 매장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직원 대상 테스트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오는 30일부터 일반 고객도 이용할 수 있는 정식 매장으로 오픈한다.

이와 동시에 신세계아이앤씨는 셀프 매장을 컴퓨터 비전, 딥러닝 기반 AI, SSG페이, 클라우드 기반 POS 등 리테일테크 관련 다양한 기술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셀프매장은 신세계아이앤씨와 이마트24가 제휴해 공동으로 운영한다. 매장 내 기술 운영은 신세계아이앤씨가 담당하며, 상품 공급 및 매장 운영은 이

마트24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SSG페이 또는 이마트24 앱을 통해 발급된 입장 QR코드를 스캔한 후, 셀프매장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별도의 상품 바코드 스캔, 결제 등의 과정이 전혀 없이 쇼핑 후 매장을 나가면, SSG페이가 자동 결제되는 미래형 유통 매장이다.

또 신세계아이앤씨는 셀프매장을 통해 국내 최초로 자동결제 기술인 ‘저스트 워크 아웃’ 기술을 선보인다. 아마존의 무인 매장인 ‘아마존고’와 같이 매장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고객의 쇼핑 동선을 추적하고 상품 정보를 인식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미샤, 새 파트너와 맞손... 베트남 공략 가속

인피니티 벤처스와 에이전시계약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난 7일 미샤 베트남 리본칭 행사에 참석한 미샤 모델 나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새로운 파트너사인 ‘인피니티 벤처스(대표 송준혁)’와 독점 에이전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인피니티 벤처스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유통 채널에 강점을 갖고 있는 화장품 전문 유통 기업이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다양한 현지 유통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올 상반기에 한화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베트남 시장에서 온라인과 멀티브랜드숍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채널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피니티 벤처스와 새로운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지 주요 화장품 유통업체의 온·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한다. 하반기 내 베트남의 유명 H&B 스토어 ‘가디언’ 100개 점에서도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에이블씨엔씨와 인피니티 벤처스는 지난 7~8일 양일간 호치민시 ‘기가몰(GIGA MALL)’과 ‘스카이라운지(SK YXXX LOUNGE)’에서 미샤 리본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미샤 메인 모델인 배우 겸 가수 ‘나나’와 양사 관계자들, 베트남 국영방송 HTV 등 유력 언론사 및 유명 인사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에이블씨엔씨 해외사업부 전문가는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도 온라인과 멀티브랜드숍이 주요 화장품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베트남은 물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롭스 강남점 ‘리프레쉬 스토어’ 리뉴얼

롯데의 헬스앤뷰티 스토어 롱스(LOH B's)는 강남점을 ‘리프레쉬 스토어’ 콘셉트로 리뉴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롭스 강남점은 지난 2018년 3월 ‘뷰티-체험형 매장’인 롱스 이태원점 오픈 이후로 1년 6개월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신개념 콘셉트 스토어다.

‘롭스 강남 리프레쉬 스토어’는 기존에 운영하던 롱스 강남점에 신규 공간

을 추가로 확보해 657.1㎡(198평) 규모로 신규 오픈했다. 롱스 매장 평균 면적(167㎡) 대비 4배 이상 크다.

롭스는 국내외 뷰티 브랜드를 포함, 헬스앤뷰티 업계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롱스만의 확고한 색깔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리프레쉬 스토어’ 콘셉트 매장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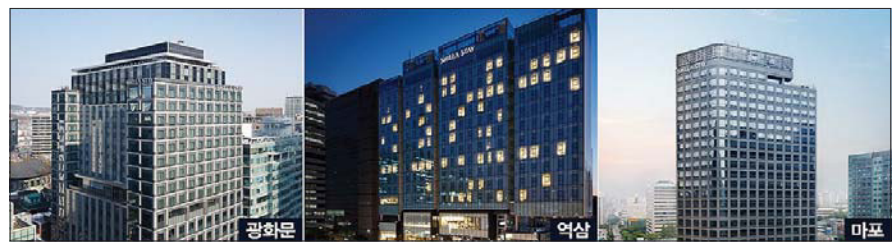
신라스테이 ‘어텀 브리즈’ 패키지 선택

최근 2030 젊은층을 중심으로 공원이나 도심 근교에서 짧고 가볍게 즐기는 ‘캠핑(캠핑+피크닉)’이 인기를 끌면서 가족을 동반해 가을 나들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은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 달로 가을 연휴를 이용해 나들이를 즐기기에 적격이다.

신라스테이는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어텀 브리즈(Autumn Breeze)’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어텀 브리즈’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시티뷰) 1박, ▲피크닉 매트 1개



신라스테이 외관. /신라스테이

(역삼, 제주, 서대문, 마포, 광화문, 구로, 울산), ▲무릎 담요 1개(해운대), ▲보냉 가방 1개(천안, 서초), ▲원글라스 스위트 와인 2종(선착순), ▲한국민속촌 자유이용권 2매(동탄)로 구성됐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신라스테이

가족동반 가을 나들이족 겨냥
지점별 무릎담요·와인 등 제공

11개 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라스테이 관계자는 “일상에 지친 고객들이 편안한 휴식과 피크닉을 즐기며 여유로운 가을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THINKWARE

아이나비

아이나비 CONNECTED

스마트폰으로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아이나비 QUANTUM 2

국내유일 전후방 QHD 커넥티드 블랙박스



아이나비 Connected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술) Connected 기술을 탑재하여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통신형 블랙박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나비 CONNECTED

전·후방 320° QHD

F1.6 후방렌즈 | Vision BSD | Extreme ADAS | 울트라 나이트 비전 | 전방위 주차녹화 | 주차 저전력 강화 | Format Free 2.0 | Drive X



[산업] 현대·기아차 운전석 오른쪽도 안전 차세대 에어백 개발 08



Life

[라이프] 혼수·이사 큰손 잡아라 유통가 대목 겨냥 '세일大戰' 나



한강 위 외딴섬 노들섬, 음악과 숲 어우러진 '문화섬'으로

용산-노량진 잇는 문화공간 조성 라이브하우스 등 전문 공연장 소규모 기획사 입주공간 마련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대교 아래 방치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 노들섬이 음악섬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 다리 밑 노들섬을 음악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28일 정식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시설을 품은 인공섬이라는 점에서 '세빛둥둥섬'을 떠오르게 한다.

세빛섬은 서울시가 2011년 총 139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조성했지만 환경 파괴와 낮은 접근성, 안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 2013년 건축전문집단지 SPACE에서 '한국 최악의 현대건축'을 주제로 건축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4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자연생태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을 거쳐 재단장한 노들섬이 오는 28일 정식 개장한다. 사진은 63빌딩에서 바라본 노들섬. /연합뉴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에서 2004년 노들섬을 매입한 후 한강예술섬 건립을 추진했다. 막대한 예산 소요, 과대한 설계 등 여러 반대에 부딪히며 2012년 사업이 최종 보류됐다"며 "이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노들섬 포럼을 구성해 설계와 운영계획

등을 확정, 운영자 맞춤형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들섬의 핵심시설은 한강대교에서 용산 쪽을 바라보고 다리 서편에 들어선 '음악 복합문화공간'(연면적 9747㎡)이다. 한강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대 3층 높이의 건축물을 다

양한 층위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음악 복합문화공간은 ▲라이브하우스(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노들서가(서점 겸 도서관) ▲엔테이블(음식문화공간) ▲식물도(島)(식물공방)로 구성됐다. 이외에 소규모 음악·문화 기획사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입주공간 노들오피스, 뮤직라운지 등이 마련됐다.

라이브하우스는 기본 456석(스탠딩 874석) 규모로 콘서트에 최적화된 음향과 조명, 악기시설, 리허설 스튜디오를 갖췄다. 노들서가에서는 15개 독립 서점과 출판사가 계절별로 직접 기획한 책을 선보인다.

한강대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3000㎡ 너비의 잔디밭 '노들마당'이 펼쳐진다. 피크닉 장소와 야외공연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강대교 동편은 한달 후인 10월 20일 문을 연다. 강의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들어선다. 나머지 공간은 기존 노들섬의 자연 생태를 보존한 '노들숲'이 된다.

환경 파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맹꽁이 3500마리 성체를 온전하게 섬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기 위해 이주지를 만들었고 섬이 40년동안 방치되면서 외래나무가 많이 자랐는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그 자리에 두려고 했다"고 말했다.

노들섬 내 주차는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섬에 15개 버스 노선이 지나고 1970여대의 버스가 오간다"며 "섬이 장기간 방치돼 심리적 거리감이 있을 뿐 실제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들섬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자를 우선 선정, 기획·설계·시설조성 후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특히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뮤지션들의 특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창동, 新경제중심지로... 대규모 산업단지 착공

최고 49층 규모 창업·문화산업단지 플랫폼 창동61·서울아레나 등과 연계

오는 2023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 동북권 일자리·문화산업 거점인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가칭)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8일 도봉구 창동 1-28 부지에서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 착공을 알리는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하 7층~지상 16층 문화창업시설과 지하 7층~최고 49층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두 건물은 서로 연결된 형태로 지어지며 연면적 14만 3551㎡ 규모다. 지하철 1·4호선과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문화창업시설에는 창업·교육·전시·마케팅이 이뤄지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공간(2500명 수용)과 문화 관련 사무실 약 300개가 조성된다.

오피스텔에는 창업창업자레지던스 공

서울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 2023년 5월 완공 예정



간 792실과 문화집객시설(서점·문화집회시설·상업시설), 주차장 등이 만들어진다. 지상 6~49층에 마련될 창업창업

레지던스 공간은 사회초년생, 1인 청년 창업자, 문화예술인 등이 거주하며 창업·창작활동과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산업단지 건물 저층부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지하 판매시설은 추후 조성할 복합환승센터나 콘서트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주변 시설과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인다.

시는 복합문화공간인 플랫폼 창동 61,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서울아레나 등과 연계해 이 일대를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영업인가를 받은 '서울 창동 창업문화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서울창동도시재생리츠)가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민간용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2019 DMZ 페스타' 개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1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DMZ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각 주제관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가 'DMZ, 생태, 평화, 관광 4개의 주제관을 조성해 DMZ의 모든 것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경기도, 건설업 폐이퍼컴퍼니 무더기 적발

'회사 쪼개기' 등 불법 업체 현장단속

경기도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 TF팀'을 신설 지난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폐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

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능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ey@

서울시, 기업·대학 등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개방

미래교통 기술 개발 지원 업무협약

서울시는 18일 자율주행 관련 국내 25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24시간 무

료 개방해 미래교통 기술 실증을 지원한다. 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이용 지침'을 만들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부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량을 보유한 19개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지원 대상 기관들은 상암 자율주행 테

스트베드 내 관제센터, 연구공간,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5월 시행되는 '자율주행차 동차법'에 따라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SAMSUNG

#6
 금손아빠와 박형기님의
 Galaxy Note10



노트10으로 우리 딸을 공주처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S펜으로 머리에 티아라도 그려넣고
예쁜 색깔의 드레스로 우아하게 꾸며줬어요~
여보, 우리 딸 진짜 공주님 같지?

Made by 박형기



당신의 빛나는 이야기로
 노트10의 세상이 더 새로워집니다

Galaxy Note10 | 10+ 5G